

90-3-20

南北體育會談

第5次 實務代表接觸 會議錄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附錄：代表團 記者會見	97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90. 1. 15 (月) 10:00~12:50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 style="text-align: center;">任 台 淳</p> <p style="text-align: center;">(大韓올림픽委員會 委員)</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 style="text-align: center;">장 웅</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장)</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 style="text-align: center;">曹 英 承</p> <p style="text-align: center;">(大韓올림픽委員會 委員)</p> <p style="text-align: center;">朴 秀 蒼</p> <p style="text-align: center;">(大韓올림픽委員會 委員)</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 style="text-align: center;">김 세 진</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 style="text-align: center;">허 혁 필</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2. 會 議 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 (任台淳) : 안녕하세요?

北 (장 응) : 안녕하십니까?

南 (任台淳) : 자, 앉읍시다.

오늘 장선생 기분이 좋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北 (장 응) :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제가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까?

南 (曹英承) : 좋아 보이는데요.

北 (장 응) : 좋아 보여요? 날씨가 짜부등합니다.

南 (任台淳) : 아, 그래요.

北 (장 응) : 날씨가 짜부등해요. 우리 體育會談할 때 날씨가 내내 좋았는데 요전부터 날씨가 짜부등하단 말이야. 그래서 時間도 없는데 그저 인차 들어갑시다.

南 (任台淳) : 내가 여기서 보니까 서리(霜)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서리들이 많이 깔려있고 또 서리가 오며는 본래가祥瑞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 民族들이 傳統的으로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멀리서 보니까 새들도 이쪽 저쪽 노닐고 있고 참 평화로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짜부등한 면도 있고 특히 南北關係의 다른分野보며는 짜부등한 면도 있겠습니까마는 이거 우리가 스포츠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이 實務的인 會談에서는 좋은 結果를 生産을 하도록 서로 한번 努力을 해 봅시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成果를 거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北 (장 웅) :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歷史를 보면 文宗王의 넷째 아들인가 「義天」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景致 얘기를 하셨는데 「景致란 스스로의 마음속에 달렸는가 하노라」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任先生이 오시면서 景致를 아주 즐긴것 보니까 좋은 案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해 봅시다. 다른 얘기 더하실 것 없죠?

南 (任台淳) : 예, 뭐 일을 해야죠. 자, 그럼 記者先生님들 協調를 해 주시죠.

장선생님 어제들 오셨습니까?

北 (장 웅) : 예. 어제 내려 왔습니다.

南 (任台淳) : 그럼 별로 여유가 많지 않으셨겠네요? 뭐 지난번 接觸하고 또 준비 하시느라고.

北 (장 웅) : 任先生 덕분에 일요일날 내려왔죠.

먼저 말씀하시죠.

南 (任台淳) : 예. 일을 시작을 하려면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北 (장 웅) : 하십시오.

南 (任台淳) : 우리가 新年初에 두번째 接觸을 갖게 됩니다. 이번 接觸은 1月 18日에 갖게 되는 第7次 本會談을 合意書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會談으로 만드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岐路가 되는 이러한 實務代表接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成果를 거두어 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 마주앉은 여섯 사람의 實務代表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

에서 오늘 이 實務接觸에서 해야 할 우리들의 任務가 매우 重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雙方이 誠實性을 가지고 그야말로 진지하게 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民族和合의 實現이라든가 또는 스포츠精神 發揮하고 하는 雙方間에 合意를 한 單一팀 構成·參加 基本精神에 充實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接觸에서도 어려운 問題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世界는 어제와 옛날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急速하게 變化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北間에는 여러 分野에서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感이 없지 않은 것이 솔직한 心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會談은 南北 體育人들간의 會談입니다. 따라서 오늘 實務代表接觸에서 만큼은 그야말로 스포츠精神을 發揮하자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接觸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이제 백마디의 말보다는 한번의 實踐이 중요한 이러한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우리는 말보다는 行動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姿勢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接觸은 雙方間에 주어진 問題들을 전반적으로 討議를 해서 合意를 이룩해야 되는 이러한 時間적으로 촉박한 접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접촉에서는 우리 代表들이 그야말로 실천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그렇게 努力을 하게 되기를 기대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接觸을 進行을 하는, 運營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意見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물론 貴側의 意見도 듣고 협의를 해 가면

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側 생각으로서는 合意書에 들어가야 할 構成要素들, 지난번 접촉에서 한 댓가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側 立場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본다면 合意書에는 첫째, 前文, 貴側은 序文이라고 表現을 했습니다마는 前文部分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10個項이 두번째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附帶措置로써 附側項이 들어가고, 附側의 內容이 들어가고 그리고 네번째로는 역시 날짜를 쓰고 雙方이 署名을 해야 될테니까 署名이라고 하는 部分이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基本合意書라고 할까 本合意書라고 할까 이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별도의 合意書들이 상호 제시가 되어서 討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가능하면 오늘 接觸에서 別途의 合意書들에 대해서도 項目別 討議까지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進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合意書는 이렇게 다섯가지 構成要素로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덧붙인다며는 이 合意內容이 誠實하게 履行이 되도록 그것을 保障하겠다 하는, 말하자면 雙方當局이 그 合意內容의 履行이 保障되도록 적극 支援·協調하겠다 하는 覺書를 교환하도록 이렇게 雙方間에 이미 意見一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몇가지 討議할 案件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이미 意見이 一致되어 있는 部分도 있고, 아직은 좀더 研究를 해서 意見を 나누겠다고 되어있는 部分도 있고 또 그 가운데에는 雙方間에 見解差異가 露呈되어 있는 그러한 部分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을 順序에 따라서 죽 意見이 一致된

것은 간단간단히 짚어가지고 하고 그래서 大體討議를 일단 마치고 나서 1月 18日 本會談을 열고, 아마 내 생각에는 오늘 文案整理까지는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마는 적어도 大體討議는 적어도 오늘, 大體討議라고 하는 것은 項目別 討議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못하면 밤 늦게라도 討議를 더 해야 할지는 이따가 토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大體討議를 마친 그 結果를 가지고 1月 18日 本會談을 열도록 하는 것이 實務代表의 任務에 充實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장선생님 意見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北 (장 웅) : 예. 任先生 첫 얘기를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얘기에서 스포츠精神에서 오늘 實務代表接觸을 運營해 나가자. 진실로 스포츠精神에서 實務代表接觸을 運營해 나간다면 우리도 어떤 問題건 난관없이 解決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말보다 實踐이 重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實踐이 重要하다는 問題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에서도 提起된 실천·행동이 실제 實務代表接觸이나 本會談에서 表現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任先生이 오늘 討議問題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立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北側 基本發言〉

남측대표 여러분!

우리는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희망의 새해에 들어와 벌써 두 번째로 실무대표접촉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10일에 가졌던 제4차 실무대표접촉은 여섯차례의 회담과 세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하여 도달한 합의사항들에 대한 문안정리를 끝내어 18일에 열리게 될 제7차 본회담에서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실무대표접촉에 대한 내외의 기대와 관심도 그 어느때보다도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측도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4차 실무대표접촉에서 쌍방 대표들이 수행해야 할 기본임무는 10개항의 유일팀 구성방안 문안을 정리하며 둘째로, 유일팀 공동위원회와 공동사무국 구성 및 운영 세칙에 대한 문안정리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보장장치를 협의·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실무대표접촉 앞에 부과된 이러한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유일팀 구성방안 합의서와 공동추진기구 운영·구성방안 합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으며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데 대한 보장장치 문제는 지난 6차 회담 때 남측이 제기한 문제이므로 귀측의 안을 일단 들어보고 그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4차 실무대표접촉에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온 거래와 모든 체육인들에게 놀라움을 전하려는 불미스러운 정황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일팀 구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문제들과 이미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해결하여야 할 복잡한 문제들을 수십가지 씩이나 새롭게 들고나와 토의하자고 한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방은 본회담과 실무대표접촉에서 유일팀 구성을 위한 10개

항의 방안에 먼저 합의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문제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접촉에서는 10개 항의 유일팀 구성방안과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세칙에 대한 문안정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접촉에서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동위원회가 잘 되게 하고 복잡성을 피하도록 한다는 구실밑에 공동위원회에서 응당 토의·해결해야 할 수다한 실무적인 문제들까지 이 회담에서 협의·결정하자고 고집함으로써 사실상 유일팀 구성이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일팀 구성문제 토의를 잘 해나가자면 쌍방이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귀측은 유일팀 구성에서 제기되는 기타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취급하자고 합의하고도 그것을 회담에서 토의하자고 함으로써 쌍방 합의사항을 엄중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그토록 관심과 기대가 컸던 4차 실무대표접촉은 자기의 사명을 초보적으로도 수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거래와 체육인들 뿐 아니라 세상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고 또 매우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여기서 응당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남측대표 여러분!

지금 실무대표접촉 앞에는 귀측의 부당한 처사로 하여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개 항의 기본방안이 완전히 합의되었고 공동추진기구 운영방

안도 합의된 지금 단계에 와서 유일팀 구성이 성사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온 겨레가 것처럼 간절히 열망하는 유일팀 구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지난 4차 실무접촉에서 귀측이 새로 내놓은 안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로 유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10개항의 기본방안 합의서 문제입니다.

10개항의 방안은 유일팀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방안으로 됩니다. 때문에 이 방안이 타결되면 다른 이여의 문제들은 스스로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쌍방은 지금까지 10개항의 기본방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의해 왔으며 지난 6차 회담 때 와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전부 합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문안정리만 하면 10개항의 기본방안 문제는 완전히 결속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차 회담 때 귀측에서도 다음번 실무접촉에서 기본방안에 대한 문안정리를 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차 실무대표접촉 때 귀측은 기본방안에 대한 문안정리를 하자는 우리의 제의에 응해 나올 대신에 유일팀 구성문제와 관계가 없는 문제들과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해야 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들고 나와 그것부터 토의하자고 고집하였습니다.

10개항의 기본방안만 낙착지으면 유일팀 구성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무

엇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는 것인지 그 저의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실무접촉에서 10개항의 기본방안에 대한 문안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세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6차 회담 때 귀측이 제기한 방안에 대해 동의를 준 것 만큼 쌍방간에 호상 합의가 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무대표접촉에서 문안정리만 하면 이 방안에 대해서도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이 무엇 때문에 쌍방간에 합의된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 방안을 또 새로 20여개 항목씩이나 수정하고 보충해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뒤집고 수정·보충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문제들을 지연시키고 회담앞에 복잡성과 난관을 조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온 거래가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역사적인 유일팀이 거의 성사되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회담을 위태롭게 하고 고의적으로 문제들의 복잡성을 야기시키는 귀측의 행동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귀측은 회담 때마다 오늘 말보다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해왔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유일팀을 구성하려는 실천의지가 없고 유일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세상사람들 모두가 다 충분히 알고도 남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6차 회담 때 귀측이 제기하고 우리가 동의하였던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방안에 대한 문안정리도 오늘 접촉에서 하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동시에 귀측이 새로 수정·보충한 항목들은 유일팀 구성에 혼란과 난관만을 조성하는 불필요한 문제이므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성실한 리행을 위한 보장장치문제입니다.

원래 귀측이 제기한 이 보장장치 문제는 회담에서 논의할 성질의 문제가 못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유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10개항의 방안 합의서만 채택하면 유일팀을 성사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가 확고히 담보되는 것입니다.

유일팀을 구성하게 쌍방이 다 같이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구태여 합의된 사항을 리행 할 것을 담보하는 보장장치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측이 이 보장장치 문제를 기어이 합의보아야 하겠다는 조건에서 우리는 유일팀을 어떻게 하나 성사시키는 입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리행은 쌍방 올림픽위원회가 보증하고 그를 쌍방 총리들이 담보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귀측이 새롭게 제기한 부칙문제입니다.

귀측이 제기한 부칙을 보면 유일팀과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면 될 성질의 문제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귀측이 복잡하게 제기한 부칙들을 철회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팀 구성토의를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회담을 빨리 결속

할 수 있게 하는 옳은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대표접촉에서 이미 합의한대로 10개항의 유일팀 구성 방안과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방안에 대한 문안정리를 끝내고 합의사항 리행을 위한 보증문제만을 토의하여 다음번 1월 18일 제7차 본회담에서 서명함으로써 유일팀의 탄생을 선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에 대한 태도는 유일팀 구성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가름하는 시금석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정당한 입장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오늘 접촉이 훌륭하게 결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準備를 했습니다.

唯一팀 構成을 위한 10個 項目에 대한 唯一팀 構成·參加 案에 대한 前文, 貴側에서 말하는 前文은 그대로 전번에 우리가 合意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얹히고, 前文을 얹히고 基本 10個 項目을 냈습니다. 놓고 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고.

그 다음에 共同推進機構 構成과 運營에 관한 方案 이것은 이내 우리가 同意한 것이 57個項으로 됐던 겁니다. 第6次 本會談에서 내놓은 그것에 우리가 同意를 했습니다. 또 貴側에서 바꿨는데…….

南(任台淳) : 바꾼데 대해서는.

北(장웅) : 그래서 57個項을 이미 同意한대로 거기서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準備해가지고 나왔고.

南(任台淳) : 우리가 修正·補充한 부분은 考慮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

이죠?

北 (장 응) : 본래 우리가 同意를 했던 것.

南 (任台淳) : 지금 이것도 修正·補充한 부분도 철회를 要求한다 이런 말
씀이죠?

北 (장 응) : 同意를 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保障裝置, 履行保障을 위한 保障裝置로써 우리 雙方 올림픽
위원회 委員長, 올림픽위원회가 保證하는 保證內容을 이렇게 했습니다.

합의사항 리행을 위한 합의서(안)

제11차 아세아경기대회 유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북남체육회담 합의사
항을 성실히 리행하며 훈련이나 경기참가를 중지 또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1990년 1월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종 렬

이렇게 우리가 文句를 만들어 왔고, 다음 當局의 擔保覺書입니다. 貴
側의 案을 그대로 考慮를 했습니다.

제11차 베이징아세아경기대회 북남유일팀 구성 및 참가에
관한 합의 리행을 위한 담보각서(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제11차 베이징아세아경기대회에 북남쌍방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이 온 거래의 념원에 부합되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1990년 1월 일 북남체육회담 쌍방 대표단의 합의사항이 성실히 리행되도록 적극 지원·협력할 것임을 담보한다.

1990년 1월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南 (任台淳) : 말씀 다 하신겁니까?

北 (장 웅) : 그래서 우린 긴 얘기 할 것 없이 「北南唯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 文項整理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文項整理로 보면 內容은 우리가 그대로 했으니까 딱 보면 같은 것이고 貴側에서 먼저번에 序文, 前文을 내놓았는데 우리 前文 그대로 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文項整理부터 들어갑시다.

南 (任台淳) : 말씀 다 하신겁니까?

北 (장 웅) : 우린 지금 저.....

南 (任台淳)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北 (장 웅) : 그래서 이것이 뭔가하면 제11차 베이징아세아경기대회 북남유일팀 구성 및 참가에 관한 합의서 안입니다.

前文, 前文이라고 하는데.....

南 (任台淳) : 아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意見을 좀 이야기합시다. 前文에 대해서 項目確認하자는 말씀입니까?

北 (장 응) : 예, 前文부터 文項整理를 해나가자.

南 (任台淳) : 아니 그러니까 整理를 하는 問題는 기본적으로 進行을 어떻게 할 것인가 雙方間에 의견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지요.

北 (장 응) : 말씀하십시오.

南 (任台淳) : 一方的으로 할 수야 없는거고 하니까 서로 意見を 나누면서, 우리 內容이 아무리 어려운 問題가 있어도 오손도손한 霧圍氣에서 얘기를 나눕시다.

난 지금 장선생 오늘 첫 發言을 듣고 저으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난 第4次 接觸 때 까지만 하더라도 좀더 研究를 해보자 그리고 또 檢討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이 接觸에 希望을 걸고 이렇게 오늘 나왔는데 오늘 장선생 말씀을 들어보니까 相對側이 내놓은 案들을 놓고서 이것을 撤回를 하라, 會談이 相對가 있는건데 相對側이 내놓은 案을 撤回를 하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貴側의 主張을 撤回를 하라, 이 여섯사람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서로 相對側이 내놓은 案을 撤回하라는 이러한 接觸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 會談에서 成果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會談의 成果를 걸고 서로가 거기에 期待를 가지고 接觸을 進行하려 한다 할것 같으면 相對側 案을 존중을 하고 그것을 檢討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고 이렇다 해서 意見を 나누는 이러한 立場을 가지고 임해야지 相對側 案을 撤回를 하라 하게 되며는 會談은 더 進行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나는…….

北 (허혁필) : 不當한 案이야 撤回시켜야지요.

南 (任台淳) :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꾸 그러지 말고.

北 (허혁필) : 不當한 이야기를 하니깐 이야기하지요.

南 (任台淳) :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세요.

北 (장 웅) :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거예요?

南 (任台淳) :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렇게 끼어 들고 그래!

南 (曹英承) : 貴側에서는 不當하다고 그러지만 또 우리側에서는.....

北 (장 웅) : 거 큰소리 좀 치지 마십시오.

北 (김세진) : 요먼저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됐지.

南 (任台淳) : 撤回를 하라 하는 것은 問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相對側에 무엇무엇을 撤回를 하라 이러한 要求를 해가지고는 會談 進陟을 기대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느낌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나는 貴側이 끝까지 撤回 主張을 고집하는 일이 없기를 역시 기대를 하고 오늘 接觸에서는 그러한 立場을 좀 완화를 하게 되기를 期待를 합니다.

다음에 內容問題와 관련이 되는데 貴側은 지금 10個項과 그리고 前文 그리고 共同推進機構 構成方案에, 그러니까 6次會談 때 거론되었던 案 그것만을 가지고 오늘 會談을 進行을 하자 이러한 主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次接觸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었고 오늘 接觸에서도 내가 分明히 첫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合意書가 어느 한 部分만을 合意하는 것으로써 다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말로써 文書로써 合意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問題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意志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이 附則, 附則問題가 오늘 討

議가 되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선생님 처음에 말씀을 하셨듯이 前文部分도 뭐, 前文部分부터 討議하자면 討議에 應하겠습니다. 그런데 前文部分도 우리가 項目別 確認이 안된거기 때문에 討議를 해야겠지만 이 附則의 構成內容이 討議가 되어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前文을 討議를 하자고 우리 立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討議順序는 먼저 이 前文項目을 確認을 하고 그 다음에 10個項에 대해서는 項目別 討議가 일단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오늘은 共同推進機構構成·運營方案에 우리側이 修正·補完을 한 部分, 난 이걸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修正·補完된 部分을 포함을 해서 構成·運營方案 전반에 걸쳐서 項目別 討議를 進行을 하고 그리고 이 附則에 나와 있는 각 조항들, 이것은 이미 貴側이 同意를 한 부분들도 있고 오늘은 同意를 한 부분까지 전부 撤回을 要求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여 지는데 이미 同意를 한 부분도 있고, 研究를 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고 또 檢討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討議를 進行을 하면 合意書의 기틀이 완전하게 잡히지 않겠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선생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合意書의 前文條項을 確認하라는 의견이면 난 뭐 그것도 확인하는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北(장웅) : 그렇게 하고 10個項에 대한 文項整理를 하지요, 그렇게 합니다.

南(任台淳) : 그런데 作業에는 順序가 있는 것 아닙니까?

北(장웅) : 글썄 任先生이 첫발언에서 合意書 構成 여섯 問題와 관련해서 前文, 序論 그다음에 10個項, 附則, 別途 合意書, 保障覺書 등 다섯

가지로 하자고 그랬고 이것을 순서별로 意見一致된 問題들은 그저 간단 간단히, 意見一致된 問題들은 간단간단히 文項整理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대로 합시다. 다른 意見 없습죠?

南 (任台淳) : 그러니까 文項整理 問題는 말씀을 몇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文項整理問題는 合意書 骨格에 대한 기본토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다음에는 文項整理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文項整理는 일괄해서 文項整理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立場입니다.

4次接觸 때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接觸에서도 우리 입장은 똑같은 거니까 일을 빨리 하도록 할려면 실제 內容討議를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

北 (장 응) : 그러니까 內容討議라는게 지금 貴側에서.....

南 (任台淳) : 內容이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내놓은 案을 이야기 하는 거죠. 合意書案.....

北 (장 응) : 그러니까 文項討議하고, 이 10個項 文項討議를 하고 그다음에 이 文項整理를 죽 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南 (曹英承) :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南 (任台淳) : 예. 말씀해 보세요.

南 (曹英承) : 貴側이나 우리나라 앞으로 進行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난관들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고뇌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進行過程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을 事前에 導出해서 지금 論議하자고 하는 그런 見解하고, 그것은 共同委員會에 미뤄 놓자 하는 그런 見解가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오늘 이 會議 때 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北側 무비카메라 記者를 向해) 말하는데 그러면 시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찍는거 아무 것도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나요?

北 (장 웅) : 오늘 代表들은 神經들을 쓰시는구먼 내가 말할 때도 찍었는데 뭐.

南 (曹英承) : 單一팀 構成・參加 이것만은 우리가 實現을 해놓아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해놓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좁게 보아서 여기에 參席하고 있는 貴側 세 사람이나 우리側 세사람은 정말 거레앞에 罪를 짓는 겁니다.

北 (허혁필) : 맞습니다.

南 (曹英承) : 그래서 그런 側面에서 내가 한마디만 하는데 貴側이나 우리는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가지 자기 경험이나 사회환경이 달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根本적으로 그걸 認定을 하고 이 자리에 앉은겁니다. 그러한 바탕의 전제위에서 보더라도 相對方이 일단 意見을 내놓았으면 그것을 좀 이렇게 무슨 뜻으로 내놨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理由로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相對方이 거기에 대해서 反論을 제기하고 해서 좋은 점을, 좋은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장 웅대표께서 長文의 글을 읽는 가운데 내가 몇가지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서로 따져보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우리側이 不美스러운 일을 수십가지 조성해서 엄청난 난관을 조성하고 이 會議를 위태롭게 하는 不當한 처사이기 때문에 唯一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모든 事項을 撤回하라 要約하면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하나 반문해 묻겠는데, 내가 막말은 안하겠어요. 내가 하나 묻는건 뭐냐하면 이것을 撤回하지 아니하면, 撤回하지 않으면 이 會談을 進行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뭔가하는 것을 내가 分明히 묻고 거기에 대한 對答을 듣고 난 뒤에 이 會談에 대한 運營方式을 따져 나가면서 우리 이야기를 해 나갑시다.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側이 不美스러운 일을 수십가지 造成해서 엄청난 난관을 초래하고 위태롭게 하는 不當한 處事를 했기 때문에 唯一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 따라서 모든 것을 撤回하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眞意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撤回하지 않으면 會談을 進行할 수 없다는 것인지 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부터 해나가자 하는 方法을 討議해 나갑시다.

北 (김세진) : 지금 말이요 雙方代表들이 어디까지나 唯一팀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처음에 했는데 그럼 唯一팀을 하자면 唯一팀과 관련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討論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아 이제 장선생께서 이야기된 것 任代表께서 다 評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運營問題를 論議하고 있는데 그런 複雜한 問題를 또 꺼내가지고 그 意圖가 뭐

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會談 또 複雜하게 하자는 건데 바로 이렇게 하는게 會談에 대한 意志가 없는거고 複雜하게 만드는게요.

曹先生 자꾸 그렇게 會談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겠어요. 좀 내가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건데 曹先生 그런거 考慮하시라우요.

이제 運營問題 지금 어떻게 할거냐 討論하는데 또 중간에 끼어들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南 (曹英承) : 좋은 意見이에요. 좋은 意見인데 뭐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세요 貴側은 文項整理해 나가자 그리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포괄해서 이 會談에서 論議할거냐 여부를 지난번에 提示하고 이번에는 또 그것을 討議하자고 그랬고 거 어느 것부터 먼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앞서서 아예 우리 案을 내놓은 것을 撤回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眞意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撤回 안하면 이 會談안하겠다는건지 分明히 하고난 뒤에라야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을것 아니냐 이말이야.

北 (김세진) : 曹先生 지금 이거 뭐 오늘 또 論爭하려고 나온거요? 걸고 자꾸 아침부터 말야 複雜하게 자꾸하는데 자꾸 이러겠어요? 정말 우린 할 말이 없어서 가만 있는 줄 알우.

南 (曹英承) : 撤回하라는 말의 眞意를 밝히라 이말이에요.

北 (허혁필) : 不當한 意見을 撤回하라 그런 뜻이지.

南 (曹英承) : 우리가 不當한 意見을 내놓았으니까 이것을 撤回하지 않으면 會議를 안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北 (김세진) : 任代表가 다 이야길하고 會談運營 어떻게 하겠는가? 아 그래서 會談이 進展되는데 뭣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자꾸 複雜하게 만드는가 이거요. 우리도 할말이 많아요.

南 (曹英承) : 相對方의 意見을 撤回하라 그래놓고 무슨 會談을 進行하나 말이야. 相對方의 意見을 討議도 안 해 보고 撤回하라 그랬으니까 무슨 會議가 되겠느냐 그 말이야.

北 (장 웅) : 曹先生! 반말질하지 말아요. 반말질. 「이사람아」가 뭐야 「이사람아」가.

南 (曹英承) : 相對方의 意見을 들어 보지도 않고 撤回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요.

北 (김세진) : 曹先生 보면 할려고 나온게 아니라 複雜하게 만들려고 항상 그런단 말이요. 우리 할말 많아요.

南 (曹英承) : 내가 撤回하란 말을 撤回하시요 이력하면 되겠어요?

北 (장 웅) : 우선 이거 會談秩序 좀 있어야 겠어요.

會談秩序가 있어야 되겠어요. 반말질을 하는데 지금 曹先生, 아 曹先生!

南 (任台淳) : 자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하고.

北 (김세진) : 중간에서 複雜하게 하는게 옳소?

왜 이렇게 音聲이 높아지면 會談이 어떻게 되요? 이 原因이 어디 있소? 참고 가만 있단 말예요.

南 (任台淳) : 우리 會談을, 이렇게 되면 會談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會談을 안되도록 할 수야 없는 것 아니겠어요?

北 (장 웅) : 任先生!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나도 이거 뭐 큰 소리치려면 치고 다 하는데 우선 우리 말은 정중하게 합시다.

이거 會談인데 우리가 온 거래의 業원을 담아서 여기에 나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會談에서 반말질도 나오고 지금 이러는데 이런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죽 本會談이나 實務代表接觸을 하면서 한번도 큰 소리를 친 적이 없습니다.

南 (曹英承) : 왜 큰 소리 친 적 있지 왜 없어요?

北 (장 응) : 그런데 오늘 이거 반말질이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거 수준높게 무게가 있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貴側의 얘기는 文項整理를 前文은 지금 整理를 하자 그런데 10個項目 文項整理는 못하겠다 이거다 말입니다. 10個項目 文項整理는 다 한 다음에 一括討論을 하자 지금 이렇게 돼 있지요? 맞습니까? 任先生님?

南 (任台淳) : 가만 있어요. 장선생 이야기 들어 보세요.

뭐 반말질을 마치 우리쪽에서 어느 代表만 그렇게 한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는 않고, 서로간에 반말질을 한 事例들이 내가 있다고 하는데.

北 (장 응) : 「이사람아」가 뭐요 「이 사람아」가, 예이 代表 말이야 이 정중한 會談에 와서 「이사람아」가 됩니까? 「이사람아」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南 (任台淳) : 아니 소리 안지른다고 금방 이야기해 놓고 또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北 (장 응) : 허대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任代表가 목소리를 올리며 소리를 치는데 그러하면 됩니까?

南 (任台淳) : 아니 소리지른다고 안해놓고 소리를 먼저 지르면 그게 벌써 말과 行動이 틀린 것 아닙니까?

北 (장 응) : 그러하면 돼요? 그러하면 안됩니다.

南 (任台淳) : 우리 이렇게 되면 會談이…….

北 (장 웅) : 처음부터 벌써 허대표한테 한 얘기는 뭐요? 연령으로 봤을 때도 말이야.

南 (任台淳) : 정말 처음부터 霧圍氣가,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날씨가 뭐, 처음부터 霧圍氣 말씀을 좋지 않은 方向으로 하시는 것도 내가 아무래도 會談에서는 좋은 말씀이 계시겠지 하고 期待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會談이 霧圍氣가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뭐 서로 撤回 要求하다가 말 會談이라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러한 立場을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장에 撤回하라고 한 말을 또 撤回하라 이렇게 要求를 한다면 또 貴側도 立場이 있겠으니까 난 그것이 變化가 있기를 期待하면서 오늘 接觸을 進行하겠다. 이렇게 난 나 나름대로 아량을 보인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장선생 말씀하시기를 霧圍氣가 좋게 이야기를 進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난 거기에 대해서 全적으로 同感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필요없이 소리를 높인다든가 이러한 일이, 아주 또 높이지 않을 수야 없겠죠.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北 (허혁필) : 일이 돼가는 方向에서 높여야지.

南 (任台淳) : 좋은 意味에서 서로 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말하는데 너무 制約을 가할 필요는 없어요. 내 생각에는 制約을 가할 필요는 없고 얘기하는 것 들어보고 또 틀리면 이쪽에서 거기에 대한 意見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이 會談이라는게 뭐니까?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이 會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 장선생님 前文에

대해서 討議를…….

北 (김세진) :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南 (任台淳) : 아니 아니 進行問題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하십시오.

北 (김세진) : 내 명백히 하는데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하는데 任先生 내 말 들으시요.

南 (任台淳) : 進行問題 더 이야기할 것 있어요?

北 (김세진) : 이제 곧 會談을 잘하시자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말하는걸 자
꾸…….

南 (任台淳) : 아니 進行問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게 있어요?

北 (김세진) : 우선 明白히 하고 넘어갈게.

南 (任台淳) : 아니 거기서 또 進行問題이야기 하면 이쪽에서 또 이야기해
야 됩니다.

北 (김세진) :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南 (任台淳) : 아니 그러면 이거 基本問題 언제 討議하자는 겁니까 자꾸
이러면?

北 (김세진) : 난 그게 아니예요.

南 (任台淳) : 얘기를 하면 결국 또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김대표 이야기하면 여기 曹代表 얘기하
고 朴代表 얘기하고 또 그러면 허대표하고 이러면 基本問題가 언제 討
議됩니다?

北 (김세진) :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할 건 다 하자 할테니까.

南 (任台淳) : 할건 하는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왜 그래?

北 (장 웅) : 말을 이상하게…….

北 (김세진) : 그래서 난 이제 任先生이 오늘 會談을 좋은 霧圍氣에서 하

자는데 同意를 합니다.

南 (曹英承) : 이상한 사람이야. 왜 代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와서 그래?

北 (김세진) : 우리는 지금까지 貴側 代表들을 代表로서 대상해 왔고 이렇게 지금 對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南 (任台淳) : 그게 말이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代表로서 對象해왔다?

北 (김세진) : 말하는 걸 보면 말이 쌍스러운건데 이런거 앞으로 注意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任先生하고 장선생하고 問題討論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와서 複雜하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차라리 자리를 바꿔 앉으세요. 자리를 바꿔 앉으면 비슷할 것 같아요.

南 (曹英承) : 複雜하다 難關이다 뭐 위태롭다, 뭐 어쩐다 하고 말이야.

北 (김세진) : 이걸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걸 前提로 하고 會談 잘 하자.

南 (任台淳) : 前提로 하다니 다 된 이야기에 또 코빠뜨리는구만.

김세진 대표 앞으로도 자꾸 이런 式으로 하면 會談進行할 수 없습니다. 김세진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進行發言 또, 지금 얘기들어 보니까 아까 한 이야기 또 하는데 거기다가 다른게 뭐냐하면, 『前提로 한다 그걸 前提로 한다』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北 (장 웅) : 그래서 이야기 좀 합시다.

南 (朴秀蒼) : 끝내고 잘 합시다.

北 (김세진) : 잘 하자는데 그래.....

南 (朴秀蒼) : 똑같은 얘기 반복해봐야 뭐합니까?

北 (장 웅) : 그러니까 지금 進行問題에서 意見이 상치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이 前文을 비롯해서 北南唯一팀 構成에 관한 合意書 文項整理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다 合意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南 (任台淳) : 아니 가만히 계세요. 文項整理.

北 (장 응) :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들으십시오.

南 (任台淳) : 그러니까 무슨 意見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北 (허혁필) : 順次대로 討論하면 되는거 아녜요?

南 (任台淳) : 아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 意見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一方的인 主張만 하는거는 一方的인 고집이라고 나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北 (장 응) : 바로 내가 해야 될 소리를 하는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南 (任台淳) : 討議의 進行이라고 하는 것은 相對가 있는겁니다.

적어도 進行問題에 대해서는 서로 合意를 해서 合意된 方法에 의해서 進行을 해야지 一方的인 方法으로야 그거는 一方進行에 불과한 것이지 協議했다고 할 수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不可能한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同意를 해야지 進行 方法에 대해서는 同意를 한 가운데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一方的으로 낭독을 해버리고 나온 것은 進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나는 10個項 構成要素 전반에 대한 討議를 먼저 하고 그리고 文項整理는 一括해서 해나가자 난 그런 立場이 確固합니다.

北 (장 응) : 우리 立場은 이미 合意된 雙方이, 조금 있으면 거의 1년이 되어 오는데 그 1年餘에 걸쳐서 6차례 本會談과 3차례 實務代表接觸에서 完成한 10個項目 文案整理와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에 관한 方案, 이 文項整理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立場입니다. 이것은 變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唯一팀 構成을 위해서 雙方이 꼭 必要하다고 認定하고, 이것이
며는 唯一팀이 構成될 수 있다고 合意해서 認定했기 때문에, 合意해서
만들어 놓은 文件이 바로 이 2가지 基本文件입니다. 이 2가지 基本文件
이면 唯一팀을 내오고 共同推進機構를 내오는데 充分하기 때문에 이 2가
지 文件을 合意를 했습니다. 이 文項整理만을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둘째로 6次本會談 合意事項은, 6次 本會談 合意事項은 唯一팀 構成·參
加方案 10個 項目과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方案 文項整理, 그리고 保障
裝置인 當局保障覺書 이것을 合意하는 겁니다. 이것이 本會談에서 우리에
게 賦與한 課題입니다. 하나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第11次 베이징 아세아競技大會 北南 唯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
書」 10번째입니다. 열번째 10, 其他, 마지막 項입니다. 其他 「唯一팀과
關聯한 其他事項은 共同委員會에서 決定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合意事項대로 하면 됩니다 合意事項대로, 둘째가 合意事項대로 하면 된다
는 겁니다.

셋째 이 會談은 實務代表接觸입니다 實務代表接觸. 本會談에서 討論된
問題들을 다듬고 實務적으로 完成하는 接觸입니다.

지금 貴側은 本會談에서 論議도 되지 않았던 問題들을, 例하면 附則
같은 것, 이것들을 實務會談에 내 놓았는데 實務會談에서, 實務代表接觸
에서 이것들을 討議·解決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側은 이미 雙方이
合意했고, 貴側도 여러차례 걸쳐서 이 文項整理는 간단히 할 수 있다고
한 10個項目 文項整理부터 빨리 끝내서 18日 本會談에서 수표가 完成되
도록 文項整理에 들어갈 것을 提議합니다.

南(任台淳): 말씀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뭐 하시던 말씀을 되풀이하

고 되풀이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걸 뭐 錄音器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는데, 난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들로서는 적어도 合意書를 만들려면 合意書에 들어가야 될 基本要素들에 대한 討議를 先行을 하고 그 바탕위에서, 意見이 一致된 바탕위에서 文項整理를 하는 것이 當然한 順序일 뿐만 아니라 效率的이겠다. 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렇게 雙方間에 똑같은 이야기만 오고 가다가 보며는 오늘 接觸이 아무런 進展을 期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意見を 내놓는 것은 먼저 前文을 檢討하자 하는데 대해서는 雙方이 意見を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前文을 檢討를 하고 그 다음 順序로서는 이 共同委員會 構成·運營方案에 대해서 貴側은 이것을 撤回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난 그야말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內容이 根本적으로 무슨 本質的인 變化를 가져온 것도 아닌거고 다만 정말로 우리가 單一팀을 構成하려면 이러한 條項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部分들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정말 이거 좋은 意味에서 部分的으로 修正·補完을 해왔는데 그것마저도 撤回를 해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討議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되며는 이걸 참 오늘 接觸이 처음부터 벽에 부딪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前文部分을 檢討를 하고 그리고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方案에 관한 逐條討議를 進行을 하고 그리고 나서 附則問題에 대한 具體的인 討議를 進行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을 다시한번 貴側에 正중하게 要求를 합니다. 장선생! 그렇게 합시다.

北 (장 응) : 제가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會談을 시작해서, 會談을 시작해서 서로 雙方이 提案을 내놓고 完成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온 文件이 10個項目 基本文件입니다.

왜 그런가? 共同推進機構도 共同推進機構 運營細則과 같은 이런 構成·運營 合意書와 같은 問題도 結局은 이 10個項目 基本文件에서 이미 指摘되었거나 거기서 派生된 問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附則, 用語解釋, 交換競技와 施設踏查班 交換 그 다음에 아시아競技組織委員會하고 OCA에 보내는 이런 書翰問題, 이것들은 여기서 討議할 問題도 아니며 討議할 수 없는 不當한 問題들이라고 認定합니다.

왜 그런가? 첫째로 附則이요, 用語解釋이요, 交換競技요 하는 것을 會談이 다 成事되어 署名하게 되는 이 막바지에 와서 내놓고 討議하자고 하는 그 底意가 무엇인가? 唯一팀 構成方案 78個條項, 78個條項을 6次의 本會談과 3次의 實務代表接觸에서 合意되었습니다.

內容討議도 안된 37個項이나 되는 附則과 各 文件들을 貴側에서는 前번 實務代表接觸에 내놓았는데 이것을 한번에 討議해서 文項整理를 하겠다고 내놓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貴側이 眞實로 唯一팀을 하자는가 疑心할 수 밖에 없다.

둘째로 附則內容을 보겠습니다. 그 內容이 唯一팀 構成과 전혀 無關係한 것들이거나 共同委員會에서 取扱할 問題들입니다.

實例를 들겠습니다. 交換競技, 施設踏查 이 唯一팀 構成과 무슨 關係가 있습니까? 이것이 保障裝置입니까? 競技場所問題가 實務代表接觸 所管입니까?

共同推進機構의 機能 「(1)共同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의 (가)안에는 ②에는 다음과 같이 指摘되었습니다. 「共同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種目別 共同訓練 및 選手選拔戰日程 및 場所」라고 明白히 規定되어 있습니다. 共同委員會를 왜 내옵니까 共同委員會를? 合意事項이 明白함에도 不拘하고 왜 자꾸 複雜한 問題들을 들고 나와서 唯一팀 構成의 進路에 이 그루터기를 만드는가!

셋째로 貴側은 왜 附則이요 附屬合意書요 하면서 이미 合意한 事項들을 계속 變更시키는가?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案을 우리가 12月22日 合意되었습니다. 이때 57個項이었습니다. 19日만에 62個項으로 만들고 27個項을 뜯어 고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새롭게 討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우리 지금 저 개구리作戰이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적에, 어렸을 때 개구리잡이 해 봤겠는데, 잡으려고 하면 또 뛰고, 잡으려고 하면 또 뛰고 이렇게 놓고 보면 貴側이提起한 이 附則의 用語 解釋이요 등등이 전혀 討議對象의 問題가 아니라는 것이 明白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지 말고 이거 基本文件인 10個項, 前文부터 文項整理를 해서 10個項 文項整理를 쭉 그저 간단히 할 수 있다는데 이거 간단히 합시다. 이거 왜 그렇게 힘들어 하고 두려워 합니까?

南(任台淳): 자 장선생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北(장웅): 하시오.

南(任台淳): 예, 지금 장선생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賊反荷杖의 이야기고, 賊反荷杖의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정말로 事理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主張을 하신다. 나는 이렇게 우선 느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선생 말씀은 唯一팀 그야말로 單一팀 構成과 無關한 問題를

提起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또 共同委員會에서 이야기 할 이야기를 내놓았다. 또 合意事項을 무슨 變更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唯一팀, 單一팀 構成과 無關한 問題를 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事理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그야 말로 單一팀 構成을 정말로 實際狀況을 생각이나 貴側이 해보시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난 그것을 우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單一팀을 構成을 할려고 하며는 實際 어떠한 狀況이 必要하겠 다.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사실상 상정을 해 보거나 하셨는지 오히려 疑心스러운 이러한 느낌을 나는 갖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單一팀과 無關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무얼걸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며는 親善交換競技를 開催한다든가 또는 施設을 踏査를 한다든가 하는 問題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賊反荷杖의 表現이 아니냐 적어도 單一팀을 構成을 할려면 選手들이 오고 가는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單一팀이 構成될 수 있겠는가!

南北間에 서로 體育施設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狀況속에서 單一팀을 構成하자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되고 이걸 말하자면 애당초 貴側이 이야기 했듯이 숨어서 競技를 갖자고 그렇게 主張을 해오던 그런 根本意圖가 어디에 있었는가? 競技를 내놓고 하지 못하고 숨어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基本意圖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變함이 없는 것이 아니냐! 장선생! 웃으시는데 事實 그런거 아닙니까?

다음에 共同委員會에서 論議할 事項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共同委員會가 構成이 되면 정말 할 일이 많고 그야말로 눈코뜰사이 없이

작업을 밤샘을 하면서 계속을 해도 이것을 제 날짜에 맞춰서 하기가
참어렵겠다 하는걸 우리는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이미 그림을 그려본 結果, 그야말로 共同委員會만 덩그라니 形體만 만
들어 놓고 나머지는 實際 일을 推進해나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難關이 많
겠다. 貴側은 難關, 難關하는 말을 잘 쓰는데 그야 말로 共同委員會만
을 덩그라니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것이 單一팀을 實際 構成해 나가는데
있어서, 參加해 나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共同委員會가 잘못하면 難關에
逢着을 하겠다.

따라서 그 難關을 미리 除去를 해 놓아야 되겠다 그러한 趣旨에서
우리는 共同委員會의 불씨를 미리 막아놓자, 불씨를 알면서도 그대로 놓
아 두는데는 問題가 있겠다. 해서 우리는 이 10個 事項에 確實한 履行
保障을 위해서는 그러한 確實한 措置들을, 附帶措置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따라서 이것은 10個項의 精神과 그 趣旨에 맞는 範圍內에서, 그 10個
項 內容의 範圍內에서 여기서 附帶條項을 만들어 놓을 必要가 있겠다.

그리고 적어도 이것을 對外的으로도 合意事項을 確認을 해야 되고 또
對內的으로도 이와 關聯해서 어떤 問題가 發生하지 않도록 確認措置를
해놓고 그야말로 影響을 받지않는 그러한 措置를 해 놓아야 되겠다.

그리고도 우리는 거기에 더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南北間에 合意는 했습니다. 그러나 萬若의 境遇에 實踐이 어렵게 될 경
우 이것은 여러가지 境遇를 想像할 수 있습니다.

南北 어느 一方이 合意 履行을 하지 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理由에 의해서 그야말로 不可避한 理由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境遇까지도 想定을 해 놓고 하려는 그야말로 背水의 陣을 쳐놓고 덤빈다면 單一팀은 반드시 成事되어서 우리가 北京 하늘아래에 그야말로 單一팀 旗를 나부끼면서 우리가 出戰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合意履行保障裝置를 確實하게 해놓자 하는 趣旨에서 이것을 내 놓았는데 오늘 貴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들을 몽땅 取消를 하지 않으면 困難하다.

그리하면 合意事項履行과 關聯한 것을 事實上 다 取消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立場을 가지고 나온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貴側의 意圖가 애당초부터 이러했던 것인지 이걸 오늘 失望感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다시 한번 우리 장대표에게 懇曲하게 勸告를 하고자 하는데 이 附則問題에 대해서는 좀 더 深思熟考를 해서 意見을 이야기 해주기 바랍니다.

지난번 接觸 때까지만 하더라도 研究를 해 보겠다. 그리고 共同推進機構에 修正·補完된 것은 內容은, 內容自體는 뭐 별개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深思熟考를 좀 더 하셔가지고 意見을 서로 이야기가 되도록 이거 一方通行이 아니고 서로 通交가 되는 方向으로 이렇게 對話를 進行합니다.

北 (김세진) : 저 내가 한마디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제 그 任代表가 無關한 問題가 아니다. 이게 前提條件으로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問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親善交換競技問題를 實例를 들었는데 그래 우리가 이번 會談의 議題가 됩니까? 議題가 「第11次 베이징

아세아競技大會에 北과 南이 唯一팀으로 參加할데 대하여」 이것이 우리 議題아닙니까?

우리代表들은 이 議題를 가지고 討論해왔고 이젠 合意, 거의 저 完結에 到達되었는데 아 親善交換競技야 우리 議題하고 무슨 關係가 있는가?

이거 언제 우리가 討論해 본 問題인가? 議題밖의 問題가 明白함에도 不拘하고 이 會意書를 오늘 討論하자고 들고 나오는데 이거야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일이죠. 아까 거기서 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뭣 때문에 議題 밖의 問題가 明白한데 우리 議題를 몰라서 貴側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議題모르면 다시한번 議題研究를 하시오 우리 議題. 따라서 지금까지 討論했지 언제 이런 議題 밖의 問題 討論한적 없지요.

그런데 그런걸 오늘 여기 들고 나오는 그 底意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게 無關係하지 않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걸 자꾸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이런 問題들을 가지고 자꾸 論議해야 事實 이 會談이 複雜해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10個事項 그 問題부터 들어 가는게 어떻겠는가.

北 (장 웅) : 자 前文討議 들어 갑시다.

南 (曹英承) : 자 내가 한마디만, 그 김세진代表께서 議題範圍를 이야기 하시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親善競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貴側만 받아들이면 당장 18日날 署名해서 모든것이 出發될 수 있는 그런 모든 書類를 갖추어서, 內容을 갖추어서 貴側에 提示하겠습니다.

이제 귀측에서 받아들인으나 이것만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親善競技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親善競技만 하더라도 우리가 親善競技를 한번 해보고

난 후에, 그러니까 북과 남의 선수들이 서로 오고가고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난 뒤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合意·署名을 하고 2月 10日부터 모든 것은 發效를 하고 난뒤에, 效力을 발생하고 난뒤에 그 大合意의 機能으로 2月 3日쯤 한번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지 스포츠인으로서 도저히 理解가 가지 않아요.

北 (김세진) : 曹先生 아직도 理解를 못하시는구만.

南 (曹英承) : 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理由를 한번 말해 보세요. 議題니 議題아니니 그걸 떠나 가지고 왜 받아들일 수 없어요?

北 (김세진) : 議題아닌 것 여기다 놓고 討論하자면 우리가 討論할 수 있습니까? 曹先生! 議題가 아닌데 여기다 놓고 討論하자면 討論이 됩니까? 그러면 議題設定부터 달리 해야죠. 우리 代表들은 議題外 討論할 權利가 없습니다. 그것 明白하게 하셔야지.

그게 뭐 會談의 秩序고 道德이고 말이요 規範이지, 아 이거 議題도 아닌데 討論하자면 우리 代表들이 그걸 討論할 수 있습니까?

南 (曹英承) : 아니 이렇게 하세요?

北 (김세진) : 예, 아니 그렇게 그걸 理解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라구요.

南 (曹英承) :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南北 韓 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한 會議가 아니라 하더라도 설사 우리 體育人들끼리 만났으면 이 機會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親善競技 한번 해 봅시다 할 수도 있는 일이 바로 親善競技라 이겁니다.

北 (김세진) : 해 볼 수도 있는 일이죠.

南 (曹英承) : 그런데 우리가 더구나 이 모든 合意書를 내 놓고 합의를 하고 난 뒤에 署名을 하자 이겁니다. 署名을 하고 效力을 2月 1日부터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 얼마나 큰 大合意냐! 그 합의를 祝賀하기 위해서 合意後에 3日이나 7日쯤 우리가 아주 가벼운 親善交換競技를 한번 하자는 것인데, 스포츠인으로서 왜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없느냐 이거요. 이 때문에 單一팀 構成 못하겠다며는 어느 쪽에 責任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

北 (김세진) : 아 그것 責任問題까지 또 들어가자고.

北 (장 웅) : 자, 우리 허대표, 우리 허대표 좀 말씀하겠습니다.

北 (허혁필) :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장書記長 동지도 첫 發言에서 이야기 했는데 우린 이 實務代表接觸 使命에 맞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6次 本會談 때 우리가 다음번의 實務代表接觸을 가지는 基本趣旨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거든요. 文項을 整理하는 거다 크게 3가지. 그런데 지금 귀측에서는 먼저번 實務接觸에 나와서 이 文項整理가 우리의 기본사명인데 文項整理와는 별개의 문제들을 잔뜩 들고 나왔

다. 이제 여러가지를 保證하기도 하고 意志도 시험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다 하는데 그게 文項整理인가? 本來 10個項을 討論할 때 보다는 더 큰 그야말로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그런 격으로 그런 복잡한 산더미 같은 문제를 앞에다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合意한 대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附則問題와 관련해서 이게 無關한 문제다. 또 이 문제에 대한 것 내가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任代表가 이제 우리가 뭐 그걸 먼저번에 研究해 보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런데 전번에도 우리가 그 實務代表接觸에

서 論議해야 될 문제 밖의 것을 撤回하는 거는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도 이제 그런 걸 강조를 했고, 그걸 연구해 보겠다는 건 그건 我田引水格의 解釋입니다.

南 (曹英承) : 그때 撤回하라는 말안했습니까?

北 (허혁필) : 撤回하라는 말 했습니다. 그건 錄音 풀어 보십시오. 그건 내가 했습니다.

南 (曹英承) : 撤回하라고 안그랬으면 이렇게 나오지도 안했죠.

北 (허혁필) : 撤回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번의 마지막에.

南 (曹英承) : 意見을 提示하는데 撤回하라고 그랬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안되는 거지요.

北 (허혁필) : 不當한 意見이야 撤回해야지요. 그래서 귀측에서 내놓은 이 附則條項中에 이제 親善交換競技問題가 많이 論議되었는데 이게 本會談하고 우리 唯一팀 構成會談하고 관계가 되는거냐 아니냐? 우리는 이거 관계가 없는 거라구, 그쪽에서는 이제 관계되는 거라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親善交換競技를 이제 하자는 그 이유로써 몇가지 문제를 提起한게 있었죠?

우선 그 霧圍氣問題, 첫째 霧圍氣問題, 그쪽에서 霧圍氣問題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本會談에서 署名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히 霧圍氣는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어서 共同委員會가 發足を 하고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會議를 하고 또 共同事務局 相對側 지역에 이제 常駐해야할 事務局 成員이 근 절반이 그쪽에 가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이쪽에 오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히 選手團이 訓練을 하기 위해서 往來를 한다. 이렇게 하면 霧圍氣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구태여 분위기를 위해서 이 唯一팀 構成問題에 지금까지 한번도 論

議해 본적이 없었던 이런 親善交換競技問題를 提起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걸 또 附屬合意書에다가 잔뜩 많은 문제들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선 맞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그쪽의 趣旨 두번째로 意志實證問題를 提起했는데 意志로 말하면야 이미 意志가 있다는거야 曹先生이 아마 우리쪽 代表들 다섯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하면서 言聲도 높히고 얼굴도 붉힌적도 있고 이렇게 하지마는 실지로 우리가 이 유일팀을 하자하는 그거는 명백하게 아마 理解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걸 아마 그쪽에서 否定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수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雙方 共同委員會 委員長이 또 다시 수표를 하고 또 당국이 保障覺書를 交換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意志야 明白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이 意志問題를 또 이유로 해서 親善交換競 라는 이런 문제를 또 그 앞에 하자 하는가?

이거 하자면 이걸 별개의 문제에 대해서 또 討論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附屬合意書에다 내놓은거 보면 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잔뜩 이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래서 우리 불필요하다. 새삼스레 意志를 實證할 그럴 필요로부터 이런거 할 의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全般的인 體育交流의 길을 터 놓기 위한 이 문제도 그쪽에서 親善交換競技를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 제기했는데 이 전반적인 體育交流問題로 말하며는야 唯一팀이 成事되면 이 交流問題가 자연히 거기 따라서게 되는거고 구태여 이 유일팀 전에, 共同委員會 構成하기 직전에 이런 걸 하자고 이렇게 제기를 하는가. 이렇게 보며는 이거는 어딘가 이미 6차 회담 때 우리가 다 합의했고 그쪽에선 그때도 하겠다 안됐다, 안됐다 계속 이렇게 했거든 그걸 그래서 부득이 內外輿論도 다 합

의됐다고 그쪽 신문들에서나 방송에서도 합의됐다 이렇게 하니까 4次接觸에는 또 이거 합의안되고 도장을 찍지 않게, 아까 그 曹先生 무슨 뜻으로 내놓았겠는가 하는 그걸 알라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좋은 뜻으로 내놨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걸 내놨는가 이거 이게 하자는 뜻으로 내놓은건가 수표하는 그걸 날짜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건가 우리는 그걸 의심합니다.

南 (曹英承) : 그걸 의심합니까? 그걸 진짜 의심합니까?

北 (허혁필) : 예. 진짜로 의심합니다.

南 (曹英承) : 그러며는.....

北 (허혁필) : 가만있으십시오. 내 이거 마저 이야기를 하고.....

南 (曹英承) : 내 그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해 드릴게.

北 (허혁필) :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親善交換競技問題 이거는 不當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附則全般이 不當하지마는 거기서 無關한가 관계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親善交換競技問題를 이제 들었고, 그다음에 방금 施設踏査班 交換問題도 이제 그쪽에서 제기를 했는데, 이 시설답사반 문제만 해도 그렇지 이제 우리가 여기 수표를 하고, 共同委員會 構成하고 共同事務局 成員들이 相對方 地域에 가게되면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그런걸 다 보는거지. 시설이 어디는 어떻게 되었고 어디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런 걸 보고서 아, 여기서는 무슨 연습을 할 수 있고, 이 쪽에서는 뭘 할 수 있겠다. 競技施設도 다 보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지금 회담, 수표를 할 날짜를 며칠 앞두고 이런 문제를 새삼스럽게 또 제기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附則과 같은 親善交換競技問題를 포

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포함된 이 附則을 撤回하라 그겁니다.

이건 우리가 뭐 그쪽에서 撤回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아까도 논의 되었습니다마는 이 附則을 撤回하고 기본 기둥이 무언가? 10개 항이다, 10개 항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그사이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眞摯하게 논의했습니까?

처음에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서로 딴 얘기를 내놓았다가 그것을 대방의 의견을 다 尊重하고 참고를 해서 그만큼 의견을 접근시키고 또 그 10개 항중에 여러가지 難關을 거뒀었던 그런 문제에서 서로 양보도 하고, 우리가 일면적으로 讓步했다는 얘기 많은거 있지만 그쪽에서도 일부 讓步를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意見을 접근시켜서 10개항이라는 이런거 하나의 큰 결실인데, 이런 좋은 걸 내놓았으면 이걸 合意해서 署名을 할 수 있게 合意事項을, 문항을 정리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하자는가?

해서 우리 이런 의미에서 다른 문제를 더 논하지 말고 우리 장웅서 기장 동지가 제기한 것 처럼 이 10個項 文項을 정리를 해서 또 그 다음 細則問題 그다음에 擔保覺書問題, 이런 합의서의 문안을 정리해서 다음 본회답에 넘기자 그렇게 하면 우리 여섯사람은 자기 임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보고 시비 못해요.

南 (曹英承) : 자 말씀다하셨어요?

北 (허혁필) : 예.

南 (朴秀蒼) : 내가 좀 말씀 드릴까요?

南 (任台淳) : 우리 朴代表 얘기 들어 봅시다.

北 (김세진) : 가만 있자. 朴先生 이제 意志, 責任性, 意志問題 많이 얘기 했는데 의지가 있고 責任性이 있으면 그저 이거 빨리 基本問題討論에서

오늘 회담을 進展시켜야지 자꾸 이렇게 주고 받고 하겠어요?

南 (任台淳) : 아니 김대표가 그렇게 자꾸 중간 중간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北 (김세진) : 내가 하는 얘기가 필요한 얘기를 하는거지요.

南 (任台淳) : 김대표는 그렇게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모양인데.....

北 (김세진) :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뭐 있어요?

南 (任台淳) :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지.

南 (朴秀蒼) : 저 좀 보세요. 우리가.....

北 (장 웅) : 朴秀蒼先生 오래간만에 질의를 했는데 들읍시다. 듣고서 이제 들어갑시다.

北 (허혁필) : 좋은 얘기를 하세요.

南 (朴秀蒼) : 우리는 그런 附則에 包含시킨 내용들이 왜 正當한가 그리고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쪽에서는 우리가 내놓은 것이 不當하다 이걸 우리 議題와 맞지 않는다, 또 合意事項違反이다, 이런 말들 주고 받아 봐야 똑같이 攻防 그것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왜 그런것을 내놓느냐 하면 우리 任代表님께서 세가지들 이미 밝혔고, 그것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다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이 필요없겠지마는 솔직히 이 모든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솔직히 북측을 믿지 못하게 되는가?

그 처음시작은 相對方이 내놓은 案에 대해서 아, 저건 참 관찰구나 한다면 그런 結論이 나오기까지는 相對方의 제안을 충분히, 신중히 檢討를 한 다음에 「아, 이거 案이 관찰다 그러니 우리가 接受를 하겠다

수락을 하겠다]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번 6차회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것 이렇게 드리니까 뭐 檢討해 보지도 않고 좋다 이겁니다 좋다.

南北間에, 이렇게 해 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도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냐 그런 말씀은 아는데 소위 믿음이 가지 않더라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北 (장 응) : 빨리 접수하면 빨리 접수한다고 그래…….

南 (朴秀蒼) : 그 다음에 그런 結果가 어떤 現狀을 가져 왔느냐 하며는 작년 12월 23일날 朝鮮日報에서 서울大 體育研究所를 통해서 輿論調査를 해봤는데, 국민들의 75%가 말이에요. 단일팀 구성 가능성에 있어 不正的이에요.

그러니까 이 會談을 통해서 單一팀에 대해서 合意를 봤다 하더라도 꼭 정말 남북이 單一팀을 構成해가지고 베이징에 나갈 수가 있는지 그 實現問題에 대해서는 75%가 否定的이더라 이겁니다.

北 (허혁필) : 그건 회담을 포함해서 그렇게 아마 했겠지, 회담이 안되는 줄로 알았겠지.

南 (朴秀蒼) : 그것은 우리 6次 때의 會談結果를 본데서 나온 結果라고 봐야돼요.

그러니까 親善交換競技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說明을 했지만 東西獨만해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일팀으로 나가는데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동서독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야 5년 걸렸어도 우리야 1년 못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親善交換競技라는 것이 單一팀하고 無關한게 아니에요. 單一팀 構成이 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親善交換競技가 이루어 졌습

니다.

우리가 親善交換競技 가져서 나쁠게 뭐 있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單一팀으로 나가게 됐다. 어떤 慶祝의 意味도 있는 거예요.

北 (허혁필) : 아니 내가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南 (朴秀蒼) : 그리고 그 不信感에는 것에 그만큼 좋은게 없어요. 단일팀을 成事시킬 意志가 있다며는 그거 못받아 들일 理由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뭐가 힘들다고요. 그렇잖아요? 한 3日이면 되는거예요.

北 (장 웅) : 다 했습니까 ?

南 (朴秀蒼) : 아니 전 다했어요. 왜 못믿느냐 이겁니다 왜?

北 (장 웅) : 그 이제 믿지를 못하면서 우리가 여기 나왔다고 하는데 그 것은 역시 이 會談을 우리가 成事시키겠는가 成事못시키겠는가 하고 疑心을 하는 건 오히려 우리측 입니다. 그게 바로 賊反荷杖格이라고 아까 任先生이 했는데, 그게바로 賊反荷杖格인데 그래서 一言蔽之하고 이렇게 합시다.

南 (任台淳) : 좀 하자고 하는 이야기합시다. 討議 좀 하자고.

北 (장 웅) : 합시다. 그래서 唯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합의서, 이 項目에 들어가 討議를 합시다. 그래서 이 附則에 대한 立場을 우리가 이미 명백히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후에 더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前文討議에 들어 갑시다.

南 (任台淳) : 아, 그러니까 지금 文案討議 또 들어가자는 그 主張입니까?

北 (장 웅) : 네 前文討議합시다.

南 (任台淳) : 아아, 그렇다면 뭐 오늘은 마음 다짐을 단단히 하고 나오셨구만, 그러면 오늘 뭐 討議進行을 할 意思가 없으시다고 아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정 그런 의사라며는 그러니까.....

北 (장 웅) : 아니 그 무슨 소리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南 (任台淳) : 귀측 이 얘기는 지금 자꾸 그렇게 여섯대표가 다 이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장선생 말씀이 난 지금 討議를 하자 해가지고 난 합의사항에, 構成要素의 基本骨格들을 討議를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런 말씀으로 알아 들었더니, 이 지금 다시 이야기를 確認해 보면 結局 10個項 文案討議 하자는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

北 (장 웅) : 그러니까 前文부터 부터 합시다. 前文討議 합시다.

南 (任台淳) : 前文討議하는거 좋습니다.

北 (장 웅) :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것 받았지요?

南 (任台淳) : 예 받았습시다.

北 (장 웅) : 제목은 그대롭니다. 「제11차 베이징아세아 경기대회 북남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맞습지요?

南 (任台淳) : 제목이야 나중에 文案整理를 하면 되는 거고 貴側案 前文을 한번 읽어 보십시요.

北 (장 웅) : 예 읽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는 제11차 베이징 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1989년 3월 9일 제1차 회담을 가진 이래』몇차례라는 欄은 남겨 났습시다. 『()차례의 본회담과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가졌다. 쌍방은 민족화해와 스포츠정신에 입각하여 북남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제 11차 아세아경기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북남 체육인들의 단합된 모습과 우수한 기량을 내외에 떨치고 체육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여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뭐 다른 거 없습니까?

南 (任台淳) : 그러면 우리 측안을 한번 읽어보지요.

北 (장 응) : 예, 읽으십시오.

南 (任台淳) : 第11回 北京 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關한 合意書 案의 前文입니다.

『大韓民國 올림픽委員會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第 11 회 北京 아시아競技大會에 南北이 單一팀을 構成·參加하는 問題와 關한 하여 1989년 3월 9일 第1次會談을 가진 이래 ()차례의 本會談과 () 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가졌다. 쌍방은 民族化합과 스포츠정신에 立脚하여 南北이 單一팀을 構成·參加함으로써 南北體育人들의 團合된 모습과 우수한 技倆을 内外에 떨치고 體育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증진하여 平和 統一을 促進하는 契機가 될 것을 希望하면서 다음과 같은 事項에 合意 하였다.』

뭐 趣旨는 同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字句調整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음에 論議하면 되리라 생각하고.

北 (장 응) : 틀린거 뭐 있습니까?

南 (任台淳) : 貴側이 우리 表現에 없는 것은 좀 들어간 것도 있고 용어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意見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뭐 文案整理를 하면 될거 같습니다.

北 (장 응) : 文案整理가 된 걸로 합시다.

南 (任台淳) : 文案整理는 다음에 정하면 되는 거니까.

北 (장 응) : 스포츠정신에 입각하여.....

南 (任台淳) : 아 지금 또 여기서 文案整理를 또 하나 하나 다 할려고 그러니까?

北 (허혁필) : 아 시간이 없는데 뭐 하나하나 넘어가야지.

南 (任台淳) : 지난번에 合意文討議를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北 (장 응) : 하고 넘어 갑시다.

南 (任台淳) : 자 이것 附則으로 들어 갑시다. 내 생각으로는 10個項에 대해서도 基本的으로 意見一致가 되었고, 前文에 대해서도 意見一致가 되었으니까 이제 附則에 대한 討議에 들어갑시다.

北 (장 응) : 任先生! 文案整理를 해서 나가시다. 文案整理를 해서 나가야지.

南 (任台淳) : 아니 그러면 이 附則에 대해서는 文案整理를 할 수 없는 狀況이 돼있는데, 文案整理를 해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北 (장 응) : 그 附則에 대한 우리의 立場을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南 (任台淳) : 아니 일에는 順序가 있는것 아닙니까?

北 (장 응) : 글썬 順序가 있는데 이거 完結된걸 가지고 왜 자꾸…….

南 (任台淳) : 아니 머릿막만 完結지어 놓고 그러면 몸뚱이 이하는 完結을 안지은채로 내버려 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实效性이 있는 일을 해야지.

北 (김세진) : 옳수다. 그래서 머리가 序文인데 먼저하고 몸뚱이가 10개조항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몸통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야지.

北 (장 응) : 아 그러니까 문항정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南 (朴秀蒼) : 10개항 문항정리야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南 (任台淳) : 10개항 문항정리야, 기본토의, 아니 장선생! 고집이 꽤 세십니다 내가 보니까.

北 (장 응) : 이것이 順理입니다. 이게 순리에요.

南 (任台淳) : 순리야, 큰덩어리 있는데 큰 덩어리부터 처리하는거지 어디

세부적인 화장부터, 문안정리야 화장하는 일 아닙니까. 화장부터 먼저해요?

北 (장 응) : 아니…….

南 (任台淳) : 模型을 먼저 갖추어야지 模型을.

北 (장 응) : 模型을 지금 아직까지 못 갖췄습니까?

南 (任台淳) : 분칠을 먼저해봐야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北 (장 응) : 任先生! 아직도 10개항 模型整理도 못했어요? 模型整理도 못하고 실무대표접촉이 本會談으로부터…….

南 (任台淳) : 模型整理가 안 됐지요.

北 (허혁필) : 이거, 무슨 새 소리를 합니까? 새로운 말이 지금 나오는데.

北 (장 응) : 그래서 문안정리를 합시다. 이거 뭐냐면 첫째, 선수단 명칭, 호칭부터 합시다.

南 (任台淳) : 그런걸 가지고 그러지 말고 완전히 지난번 접촉보다 태도가 완전히 경직되었어.

南 (曹英承) : 이제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北 (장 응) : 曹先生 이야기 하세요. 曹代表 얘기좀 들어봅시다.

南 (曹英承) : 우리가 前文에 대한 字句까지 읽어가면서 토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前文에 대해 거의 合意에 도달했습니다. 도달했는데 뭐가 남었느냐 하려는 토씨, 약간의 用語 이런 것이 바로 문안조정이거든요? 그 단계만 남아있지 前文하고 10個項, 10個項도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토씨 같은것 약간의 용어, 쌍방간에 다른 용어…….

北 (허혁필) : 글썄, 그걸 하자는 겁니다.

南 (曹英承) : 前文하고 10개항은 그런 단계에 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문안정리야 언제든지 가능하고 쉽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견해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요. 撤回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撤回못하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뒤통수 이유가있다. 그쪽에서는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이야기를 해 봐야 문안정리를 해나가는데서 기분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北 (허혁필) : 그만큼 이야기 되었으면 되지 않겠는가요?

南 (曹英承) : 그런 이야기인데 자꾸 文案整理만 하자 하니까 그게 참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北 (허혁필) : 기본사명이 文項整理인데 文項整理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또 도중에 中止를 하는건 뭐니까?

南 (曹英承) : 우리가 10個項 文案整理 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討議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로 여러가지 정리해서 내놓은 部分에 대해서 撤回하라 이 한마디로 끝내고 한번도 討議를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撤回해야할지, 뒤통수 우리의 理由가 맞는건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論議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대체로 討議해놓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짹 文案整理를 하면 쉬울 텐데 왜 그래요?

北 (허혁필) : 그걸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北 (장 웅) : 그래서 附則에 대한 우리의 立場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후에 또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文項整理를 10個項目 文項整理를 합시다.

南 (任台淳) : 자, 장선생 이렇게 합시다. 우선 順序가 말입니다.

지금 자주 順序를 왔다 갔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基本問題 討議를

하다가 또 中間에서 文項整理하자 文項整理하자 자꾸 이렇게.

北 (장 웅) : 이제 文項整理 들어갔다가 또 이제 왜 또 그만 스톱을 해 가지고 그만 두자고 그러니까?

南 (任台淳) : 우리가 文項整理를 한겁니까? 前文에대한 基本討議를 한거지.

北 (장 웅) : 아, 前文에 대한 基本討議야 本會談에서 合意한거지.

南 (任台淳) : 그래서 貴側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反對를 할 理由가 없는 提案을 하나 지금 합니다.

그다음 順序로서 말입니다.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方案이 있습니다. 이걸 雙方이 내놓았었고 기본적으로 의견이, 지난번에 장선생은 5분도 안들어 보고서 『동의한다』 이렇게 하신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실제 共同推進機構를 構成·運營하려면 『아 이런것도 필요하고 또 조정하는 것도 좋겠구나』 해서 아주 지엽적이라고 할까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삽입한 것에 불과한 건데 이거 그때 내놓았더라면 5분도 안보시고서 또 그대로 동의합니다』 했으리라 생각되는 內容에 불과한건데 여기 대해서 撤回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항별로 다 확인을 해 봅시다.

이거 『코리아선수단 공동위원회 및 공동사무국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귀측도 이렇게 合意書(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우리 그다음 順序에 合意를 해나갑시다. 어떻습니까? 장先生.

北 (김세진) : 그거 합의하는거 좋은데, 우선 이거 序文하고 10個事項 이것은 完結된 것으로 보고 18일날 며칠 안 남았는데 꼭 18일 이전으로 이거 해결해서 내놓자고 아까 첫발언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합시

다. 그렇게 하구 우리 생각은 이걸 먼저 다 完結할 걸로 그렇게.

南 (任台淳) : 장先生! 말씀해 보세요.

北 (장 응) : 任先生이 오늘 前文과 10個項 內容, 共同推進機構 運營細則, 附則 이런 順序로 文項整理도하고 合意해 나가자고 했으니까 그저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文項整理 된 거로 인정하겠습니다. 前文은, 文項整理가 된거로하고 거기에 다른것 없으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된거로 보고, 첫번째 선수단 호칭…….

南 (任台淳) : 하여간 우리측에서 發言을 하고 안하고간에 一方的으로 認定하는데 대해서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一方的 그러니까?

北 (장 응) : 선수단 호칭에 들어갑시다.

南 (任台淳) : 우리측 의견과 관계가 없이 一方的으로 主張하는거에 대해서 나는 이래라 저래라 貴側의 의사를 제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北 (장 응) : 선수단 호칭에 들어갑시다.

南 (任台淳) : 말씀하시고 싶은대로 하십시오.

北 (장 응) : 선수단 호칭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南 (任台淳) : 아니, 지금 또 이러실 겁니까?

北 (장 응) :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

南 (任台淳) : 아니 이렇게 해서 時間을 보낼려고 그러니까?

北 (장 응) : 中國語로는 영어발음대로 표기하되 세글자로 표기한다.

南 (任台淳) : 아니, 장선생! 장선생 몹시 급하시구만.

北 (장 응) : 원래, 원래 理致대로 하자는 거예요.

南 (任台淳) : 아니, 아니, 왜 그렇게 좌불안석하시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北 (장 응) : 기본이 文項整理 아닙니까? 기본이.

南 (任台淳) : 차근 차근 順序가 있는건데.

北 (장 웅) : 둘째로.

南 (任台淳) : 그러시면 되겠어요?

北 (장 웅) : 중국어로는 「可禮亞」로 표기하도록 베이징 아세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의한다.

南 (任台淳) : 아니 오늘 이거 토의할 기분 안나는구만.

南 (曹英承) : 會議가 안되겠네. 장웅대표 안그러시더니.....

南 (任台淳) : 혼자 이야기 다 해요. 나 이야기 할 필요없이.

北 (장 웅) : 큰둘째 선수단 깃발.

南 (任台淳) : 난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안되는 거지.

北 (장 웅) : 반팔호 첫째.

南 (曹英承) : 전에는 안그러시데.

北 (장 웅) : 흰색 바탕에.....

南 (任台淳) : 상당히 쫓기시는 것 같아요.

北 (장 웅) : 기본사명이 文項整理하고자 했는데.

南 (曹英承) : 아무리 기본사명이 文案整理라 하더라도 相對方도 이야기하고 같이 해야지, 一方的으로 읽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北 (장 웅) : 基本事項을 토의안하고 자꾸.

南 (任台淳) : 아니, 기본사항 討議하자는 겁니다 기본사항.

北 (장 웅) : 그러니까 文項整理를 하자는 겁니다 文項整理를.

南 (任台淳) : 文項整理야 나중에 분칠하는 작업아닙니까?

北 (장 웅) : 아니, 분칠하는 작업이라는게 간단히 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걸하면 되겠는데.

南 (任台淳) : 아니 덩치를 먼저 만들어야지 粉부터 아무데나 칠하면 어떻

게 돼요?

北 (장 웅) : 덩치는 이미 다 만들고 남았어요. 다 마련했어요.

北 (김세진) : 이제 다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거 文項整理를 하면 하나 하나 결속이 되는데, 빨리빨리 결속을 하자는데 아니라 왜 反對를 합니까? 反對하는 이유가 뭐예요?

北 (장 웅) : 附則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미 밝히고도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文項整理를 해야 합니다. 文項整理를 합시다. 文項整理를…….

南 (曹英承) : 그러면 附則의 大體討議부터 먼저하라 이렇게 나왔을때 서로 이야기가 안되네요.

北 (허혁필) : 이야기가 안되는게, 기본사명이 文項整理인데 왜 다른걸 꺼내는가?

南 (任台淳) : 내가 지금 오늘 貴側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귀측의 의견 여러가지를 들어봤는데 오늘 接觸이 매우 실망스러운 이러한 結果를 가지고 올 이러한 우려가 많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貴側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北京아시아 競技大會에 참가를 할려고 하며는 雙方間에 合意를 확실하게 해 놓고 또 그것을 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裝置들을 이것은 서로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이러한 裝置는 없겠는가, 또 저러한 裝置는 없겠는가. 오히려 서로가 찾아내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이 길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자하는 이런 입장에서 서로가 상대측이 오히려 덜 가지고 나왔으면 이러한 것들도 더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實踐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方向에서 우리가 일을 처리해 보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될 터인데 오

늘 貴側의 태도를 보면 지난번에서는 그래도 研究를 해 보겠다. 또 검토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그래도 사실 期待를 했습니다.

期待를 했는데 오늘 貴側의 태도를 보며는 이걸 뭐 10個項 文項整理만 들어가자, 그리고 뭐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方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내놓은거 그대로만 해도, 지난번 4차접촉 때 내놓은 案대로 하면 그것은 취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서로 妥協的인 상호간에 協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분위기가 연장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지금 귀측 태도를 보면 10個項 文項整理부터 하지 않으면 다른 討議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이 아주 누차에 걸쳐서 확고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는 난 오늘 接觸을 더 계속해 봐도 成果를 거두기는 매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그럴바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는 일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1월 18일날 本會談에서 태도변화를 보여주든가 하는 것이 重要하지 않겠느냐 뭐 여기서 쓸데없이 서로 자기측 主張만을 가지고서 똑같은 논쟁만을 벌여봐야 아무런 實益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論爭을 하고 자꾸 그 간격이 벌어지는 이러한 분위기만이 조성되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接觸은 時間을 짧게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웃는 낯으로 만나는 것이 오히려 그대로 單一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民族들의 意思에 부응하는 일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선생 의견이 어떻습니까?

北 (장 웅) : 제가 좀 얘기를 합시다.

우리는 오늘 이미 전번 實務代表接觸에서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貴側에서 唯一팀 構成과 無關한 附則이라든가, 이런 附屬合意書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問題들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는 實務代表接觸에 나오면서 貴側이 그래도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미 本會談에서 우리에게 위임한 10個項目 唯一팀 構成方案과 共同推進機構 運營方案, 이에 대한 文件과 이에 대한 文項整理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서 토의해 본 결과 貴側에서는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이런 文項整理는 할 수가 없고 附則問題만 자꾸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會談앞에는 대단히 힘든 걸림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귀측에서는 이 附則, 附屬合意書, 用語 이런 문제들을 토의를 하지 않으면 유일팀 구성방안, 공동추진기구 운영세칙, 이런 본회담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이 委任事項을, 이 위임사항에 대한 文項整理를 할 수 없단 말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南 (任台淳) : 거기에 대해서 내가 答辯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우리의 입장은 貴側이 얘기하듯이 附則의 內容을 전면적으로 취소해라, 그리고 單一팀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에 관해서 우리측이 보완을 한 內容을 취소를 해라. 이러한 입장을 계속 관철하려고 하는, 그것을 철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 前提條件이 되는 한에서는 會談의 진전은 기대할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선생의 물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答辯을 드리겠는데 우리들은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前提條件은 없습니다. 前提條件은 없으되 이 부칙은, 부칙의 내용들은 우리가 불적에는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하여 합의해야 할 필수적인 內容들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北(장 웅) : 그래서 任先生 말씀을 보면 공동추진기구 運營細則問題, 運營方案問題는 토의하자고 하면서 그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10個 項目에 대한 文項整理는 하지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왜 운영세칙 문제는 토의하자고 하면서 10個項 文項整理는 하지말자고 하는가.

다음으로 운영세칙은 귀측이 내놓은 것을 왜 즉시에 수정했습니까? 귀측이 이미 내놓은 겁니다. 내놓았던 것인데 19일만에 또 修正해가지고 나왔습니다. 會談에서 그런 법이 있습니까? 附則부터 討議하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회담과 관련이 없는 문제이고 共同運營委員會 소관이므로 이것은 토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칙은 토의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貴側의 附則은, 貴側이 내놓은 附則은 보장장치가 아닙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부칙이 본 회담이나 실무대표접촉에 논의대상이 아닌가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10개 항목 구성방안중에 이 부칙에 10개 항목이 되어있는데 10개 항목 사항 반복한 것이 1조항입니다. 10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 또 반복한 것, 용어해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두개조항 있습니다.

唯一팀 構成과 전혀 무관한 것이 한조항 있습니다 3조입니다. 유일팀이 파탄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두개조항 있습니다. 4조, 9조 共同委

員會 構成·運營方案에서 빼다가 갈라놓은 것이 2개 있습니다. 5조, 8조, 共同委員會, 엄격하게 共同委員會에서 다루어야 될 조항이 4개조항입니다. 7의 가, 나, 다, 라, 불필요한 것, 구태의연한 것이 한개가 있습니다. 신청서 문제, 명백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칙은 본 實務代表接觸에서 討議할 問題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立場을 명백히 합니다.

南(曹英承) :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단것은 附則 內容中에서 여러가지 짚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단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견을, 말씀을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破綻을 前提로 해서 하는 문장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 조항을 單獨出戰留保條項이라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아까 任代表도 說明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성의를 보인다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가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單獨으로 출전해야될 상황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겁니다. 없으면 가장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하는데 대해서 文書로 분명히 밝히자 하는 것이 그 條項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理致로 봐서 우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을 밝혀오느냐? 그 大會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3국에서 있기 때문에 會談이 다 끝나고 共同委員會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6월 22일날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끝나는데 그때까지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며는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이 北京大會組織委員會의 준비과정과 더불어 상당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이것은 결국 무슨 事由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單獨出戰할 테니까 그렇게 대비하지요 하는 통보를 할 필요가 우선 있는거고, 둘째는 그 보다는 더 중요한 우리 經驗이 있습니다.

1979年度 第35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가 평양에서 개최될 때 貴側에서 「單一팀을 구성해서 출전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서 會談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어 회담은 진행되면서 終局的으로 날은 다가왔고 우리팀만 구라파에 가서 貴側의 비자를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會談이 결말나기전에는 우리는 會員國이기 때문에 그 世界選手權大會에 參席을 해야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世界選手權大會를 貴側에서 열면서 會員國인 우리한테 비자를 주지않아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온 사실,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國民들이 무엇을 믿고 이 큰 대사업을 하고자 하느냐 했을때 우리는 그 保障條項을 넣으므로써 받을 수 있겠다. 아마 이 조항은 북측에서도 받아 줄거다하는 信義와 信賴를 갖고 그 조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연한, 理致로 봐서도 당연하고 또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확인하는 의미에서도 당연하고 그런 당연한 조항을 넣은 그 附則條項에 대해서 아주 不當하다, 撤回하라 이렇게 얘기하는건지 도대체 이 회담을 앞으로 진척시킬려고 하는 건지 여기서 끝낼려고 하는건지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其他 事項도 내가 솔직히 털어놔 할말이 많습시다만 그 條項 하나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고 나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北 (김세진) : 曹先生 거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附則을 이 合意書에서 빼자는 거지, 이 부칙에 있는 내용을 필요한데선 토론하자는 겁니다. 그건 명백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合意書에서 빼자고 하는가? 이자 우리 장선생님도 얘기 했는데 지금 거기서 附則提起를 한 것 보며는 10個 事項 뒤에다도 附則을 붙이고, 그 부칙내용을 보게되면 뭐 附屬合意書 1, 2, 3, 4 이렇게 여러개 부속합의서들 이렇게 쪽 다 부칙으로 해 놓았는데,

이 附屬合意書들을 다 보게되면 뭐인가, 이걸 共同委員會에서 토론해야 할, 이미 우리가 10개 사항에서 합의된 條項에 따라서 共同委員會에서 토론할 문제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동위원회에가서 討論하자는게 이미 합의한 사항을 존중을 해서 거기에서 討論하자는 겁니다. 이걸 명백하니 해야지.

내가 실례를 드는데, 거기 附屬合意書2, 이거 내용이 뭐인가 하게되면 10개사항과 부칙에 用語解釋에 대한 合意書인데, 요게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14개 항목인데 그 내용을 보게되면 뭐인가, 13개는 공동위원회 기능에 속하는 문제란 말이예요.

共同委員會 機能을 한번 보시라구요. 거기서 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合意·決定하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決定하게 다 規定해 놓았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이런건 공동위원회에 가서 討論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거 뭐인가하면 이자 있을 수 있는 것 이거 다 털어없애고, 전혀 토론안하자는게 아니예요. 이거 이해를 정확하니 하셔야 되구.

그래서 이 회담을 빨리 結束하기 위해서도 共同委員會에가서 할 것은 共同委員會에 가서 토론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미 이걸 合意된거기 때문

에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하는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칙의 일부 항들을 보면 唯一팀 構成問題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유일팀 문제와 관련이 없는거는 이걸 별개로, 별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말하자면 귀측에서 얘기한대로 털어 없애자는 말이에요. 유일팀 구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附屬合意書3, 거기서 제의한 3인데, 이걸 뭐 親善交換競技 및 施設踏査班을 조직할데 대한 이 合意書인데.

이거는 우리 唯一팀 구성과 관련이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 議題 밖의 문제 아닌가 이게.

우리 代表들이야 의제에 상응한 거를 討論해야지, 의제도 아닌 문제를 여기서 討論하자면 이거야 좀 얘기를 한다면 이게 너무 억지아닌가 이거야.

南 (曹英承) :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거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요약해서 하시라구요.

北 (김세진) : 거, 내 말좀 들으시라요.

그래서 이 뭐인고 하면 附則에서 우리가 공동위원회에서 할거는 이미 합의된대로 共同委員會에서 討論하도록 하고, 또 우리 唯一팀 구성과 이렇게 별개문제, 전혀 인연이 없는 問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서 唯一팀을 빨리하자는건데 자꾸 거기서 이해 잘 못하시는데, 거기선 共同委員會에 가서 이거 뭐 부담이 많아서 共同委員會가서 이거 다 어떻게 토론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들 하시는데.

共同委員會가서 이걸 왜 토론 못한단 말이에요? 이 共同委員會에 우리가 공동위원회에 이제 그 귀측에서 내놓은 案대로 우리가 합의해준대로

해도 공동위원회가 이제 2월초에 나오게 되며는 우리 훈련, 共同訓練에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한 45일간이 있는데, 아 공동위원회야 뭐 문제가 많으면야 30일간도 토론 할 수 있고 말이에요. 20일간도 토론할 수 있고, 열흘도 토론할 수도 있구 말이에요.

우리 이 회담은 이렇게 두어시간씩 모여서 그저 여러날만에 한번씩 하지만, 공동위원회야 필요하다면 열흘도 할 수 있구 스므날도 할 수 있구 서른날도 할 수 있구, 이거 다 討論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共同委員會라는 건 次元이 높지 않느냐, 여기 이 회담보다야 그래도 차원이 높지 않느냐, 하고 여기 專家들 실무일꾼들이 많이, 또 人員上으로도 倍 아니냐? 여기 열명이, 우리 다섯명이 하는거에 비해서 배인데 능률이 나도 그만큼 능률이 난다.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創造的인 案들이 많이 나올거고.

그 다음에 이 共同委員會라는거야 실지 우리가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렇게 우리가 不信과 信義가 지금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은데, 이때가서는 이런 분위기도 많이 가서지지 않겠는가. 문제토론에도 많이 前進이 될 수 있는거구.

아 그 다음에 또 共同委員會라는게 雙方 올림픽委員會 委員長들이 참가하는건데, 위원장들은 다 舊面이에요. 서로 만나면 문제토론을 다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구.

그래서 共同委員會에 가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共同委員會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자꾸 여기서 내놓고 문제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하는 소린데.

이거 회담을 정말 唯一팀을 하자고 하면 우리 합의한대로 共同委員會에 가 할건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기본문제 빨리하고 여기 이 署名하는

걸로해서 18일날 本會談에 제기하자는 우리 심사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唯一팀을 꼭 成事시키자는 이겁니다.

南 (曹英承) :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세진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굉장히 重要的 얘기를 몇가지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서로 意見을 交換해야 앞으로도 순조롭게 進行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議題, 議題하는 말을 자꾸 했습니다. 또 貴 議題와 關係가 있다 없다하는 얘기를 자꾸 하셨지요.

이 두가지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討議해야 할 의제가 뭐니까? 10개항 이 問題 요것만 가지고 議題라 하는 겁니까? 이 의제가 뭐냐하면은 의제를 보세요. 議題는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事項」이 의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實務代表接觸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 議題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토의하고 있는 本會談의 위임을 받아서 그 委任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재량을 갖고 신임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놓은 부칙조항중에서 用語解釋 부분에 있어가지고 公開選拔戰이다 하려는 공개선발전이 뭐냐? 상대방의 TV중계를 인정하고 參觀團이 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참가에 관한 사항과 관계 없는 얘기입니까?

北 (허혁필) : 그건 공동위원회에서 토론할 것이지요. 그건 이제 세진대표가 정확하게 그건 공동위원회에 끝날거다 그렇게 했죠.

北 (장 웅) : 공동위원회가 내지요. 이전 실무대표접촉이지.

南 (曹英承) :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 또 합의를 하는 마당에, 또 합의를 하고 난 뒤에 效力이 發生하고

이제는 정말 단일팀으로 구성하기위한 모든 거래의 意見이 합의되었다하는 문서에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署名이 되는 겁니다.

그 서명을 기념하고 앞으로 공동위원회부터 시작될 여러가지 일을 실지로 한번 교환해 봄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사실상의 문제들을 사전에 한번 點檢해보자하는 것이 어떻게 共同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한 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귀측은 親善交換競技 한번 하자 하는 그것 못 받아들여서 이 共同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합의를 안하겠다는 겁니까? 거꾸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北 (장 웅) : 얘기하시는데 내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얘길 했으니까 내가 좀 얘길 합시다. 공동 친선경기문제를 하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에 앞서서 내가 좀 탁구 얘기를, 옛날 古來的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南 (任台淳) : 古來的 얘기가 아니죠.

北 (장 웅) : 유일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얘길 합시다. 탁구문제는 唯一팀을 하자는데, 唯一팀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깐 깐거죠. 그리고 국제卓球聯盟이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일팀으로 참가하라고 그건 이렇게 명백히 밝혀두고.

다음 이제 그 親善競技를 안하면 唯一팀을 안하겠다는 소리냐 그건데 친선경기문제를 지금 여기에 내놓은 것은 귀측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주제넘는, 주제넘는 자세와 입장이다. 주제넘는거다. 이 회담이 뭐 하러 있습니까? 뭐하러 뭐 하려고, 지금 나 다 까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교통문제, 陸路·海路 뭐 이 문젠데 그것도 나왔는데 그것을 誘導하기

위해서 이제 그건 완전히 엉뚱한 거니까 전혀 10개 항목 唯一팀 구성 방안에도 없던거를 지금 附則이라는데 그걸 내놓고 부칙의 것을 다시 전개를 해서 用語解釋에 갖다 붙여 놔단 말예요.

이건 아이보다 배꼽이 크죠. 아마 발명대왕 에디슨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발명을 해 내는구나 하고서.

에디슨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칙이나 밑에 굉장한 量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대 밑에 와서 내놓고 이걸 합의하자, 토의하고 합의하자, 이게 論理不當이다. 論理不當이다. 실제로 유일팀을 하자는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왜 우리가 의심을 안하겠는가.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해야될 소관의 문제까지 전부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任先生 얘기를 간단히 하다 말았는데 附則, 附屬合意書, 用語解釋問題 이런거 털어버리십시오. 털어버리면 간단합니다.

南 (任台淳) : 자, 얘기 또 있습니까?

北 (장 웅) :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이 附則, 附屬合意書 뭐 이런거 이거 토의를 안하면, 토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본회담에서 합의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文項整理에 못 들어가겠는가 다시 한번 귀측이 明白히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南 (任台淳) : 내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귀측은 지난 6차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그 어느 한쪽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차 회담에서는 분명히 10개항에 대해서 意見一致를 보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附帶措置들을 강구하자. 그 부대조치라는 게 뭐냐? 우선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강구를 하는 문제가 첫째다.

이 강구를 하는 방법으로써 쌍방이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하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실상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 토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합의문안 전체에 대한 문안정리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귀측의 오늘 태도를 보며는 當局이 保障하는 覺書를 交換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그중에 하나로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 이외에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털어버리겠다.

이 얘기는 지금 뭐냐하면 난 오늘 상당히 귀측의 태도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單一팀 構成·參加를 實現하는 과정에 있어서 相對側 內政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든가 또는 軍事問題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한다든가 그밖에 體育外的問題를 끼어들려고 하는 이러한 짓을 서로 하지 말자.

北 (장 웅) : 이미 들어가 있죠.

南 (任台淳) : 얘기 들어보세요.

北 (장 웅) : 이미 들어가 있지.

南 (任台淳) : 지난번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北 (장 웅) : 다 있는 걸 가지고 자꾸.....

南 (任台淳) :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명백하게 박아놓자 하는데 대해서 지금 귀측은 이것을 털어버리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돼서, 돼가지고.

北 (장 웅) : 10개항에 다 있어요. 運營細則에도 있고.

南 (任台淳) : 가만히 얘길 들어보세요!

北 (장 웅) : 하슈.

南 (任台淳) :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의 주장이 아니겠는가. 이걸

그야말로 文書, 文書놀이만 하자는 거 아닌가.

北 (장 웅) : 누가 할 소리…….

南 (任台淳) : 文書놀이만 하고 실제 行動에는 關心이 없는 이러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오늘,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회담을 하겠다는 代表의 發言은 아니라고 난 인정이 됩니다.

相對側의 主張에 대해서 撤回을 하라는 건 또 그렇다치고, 주제넘는게 뭐니까? 가야말로 주제넘게 주제넘는 얘기, 주제넘는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며는 이걸 가야말로 주제넘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는 가야말로 撤回을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北 (장 웅) : 격에도 맞지않고, 격에도 맞지 않고…….

南 (任台淳) : 주제넘는 이야기를 자꾸 하지마세요. 오늘, 오늘 참 분위기가 시간이 시간이 갈수록 더 혼탁해지는구먼.

北 (장 웅) : 그 다음에, 자 내 하나만 합시다. 이제 任先生 얘기를 했는데.

北南唯一팀 共同推進機構構成·運營方案, 귀측에서 12月 22日 우리한테 넘겨 준겁니다.

「마」항입니다. 『공동위원회는 유일팀구성·참가문제 협의·해결과 그 실행의 實效性을 보장하기 위해 일체의 體育外的問題를 거론하지 않으며, 쌍방당국이 이를 보장하는 覺書를 교환한다.』 명백히 있습니다. 명백히!

이걸 둘로 갈라가지고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게 이게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합니까? 예?

南 (任台淳) : 共同運營委員會가 單一팀 構成方案의 基本立場, 基本原則과 다른거죠.

北 (장 웅) : 공동위원회가 단일팀구성을 하는데서 나오게되면 常設機構로서

이것이 유일팀 구성을…….

南 (任台淳) :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으니까 합의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北 (장 웅) : 왜 자꾸 복잡하게 이렇게, 털어버려야 될 것은 거저 털어버리면 되겠는데 그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자꾸 展開를 해서 놓고 이 문제를 討論하자고 합니까?

南 (任台淳) : 아 이것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승의를 못하고 털어버려야 된다?

北 (장 웅) : 그래서 그저 이런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지 말고 문항정리 합시다. 문항정리!

南 (任台淳) : 난 귀찮이 그야말로 판에 박힌 이야기를 거듭하는데 대해서 나는 그야말로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찮이 적어도 얘기를 그렇게 판에 박은 얘기, 문서놀이만 하자, 자꾸 이렇게 되며는 얘기가 여러가지…….

北 (장 웅) : 문서놀이! 문서놀이에 대해서 하하하 이럴수가 하하하…….

문서놀음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 이 한 도라꾸 갖다 부려놓았는데, 하하하.

南 (任台淳) : 아 문서, 내용을 먼저해야 됩니다. 내용을!

北 (김세진) : 부칙, 친선교환경기를 위한 附屬合意書(案)에도 또 이런걸 하나 더 붙였어.

南 (任台淳) : 뭘 더 붙혔어요?

北 (김세진) : 親善交換競技를 하자는것 附則에다 박아 놓고서는 그 부속합의서를 또 이런거 하나 또 넣어, 이걸 어떻게 승의를 하는가? 이제 며칠 앞두고.

南 (朴秀蒼) :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北 (김세진) : 아니 내용을 잘 모르다니, 이 안에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10개항을 몇달 동안 했는데…….

南 (任台淳) : 아니, 5분동안 보아서 힘들면 10분동안만 보면 다 同意할 수 있을텐데 왜 그래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北 (김세진) : 말도 되지 않는 소리…….

南 (朴秀蒼) : 공동위원회에서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말입니다. 벌써 몇십명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常駐까지 합니다.

北 (김세진) : 來往하고 常駐를 하는게 뭐가 나쁘니까?

南 (朴秀蒼) :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그게 필요하니까 내 놓은 것이지. 필요하니까 내 놓았고, 그리고 필요하니까 상대방에서는 그걸 동의를 했고 그런거 아닙니까?

北 (김세진) : 예.

南 (朴秀蒼) : 지금 이런 문제들은 共同委員會에서 토의될 내용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이전에 協議·解決해야지 어떻게 해서 공동위원회에서.

北 (장 웅) : 답답하구만 답답해.

南 (朴秀蒼) : 共同委員會에서…….

北 (김세진) : 아 來往問題를 공동위원회에서 協議·決定하게 안되어 있어요?

南 (朴秀蒼) : 아니 거기서 할려면 그런 문제들은 이미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제대로 履行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北 (김세진) : 아 공동위원회를 그럼 믿지않는다는게 공동위원회를 무시한다는 겁니까? 예?

南 (朴秀蒼) : 아 못믿지, 그걸 못 믿지요.

北 (허혁필) : 공동위원회를 못 믿는다?

南 (朴秀蒼) : 공동위원회가 과연 발족이 돼서.....

北 (김세진) : 바루 아마 박선생이 뭐 믿지 못해서 이거 이렇다하더니. 공동위원회도 못 믿고 그럼, 그러니까 唯一팀을 못하겠다는 소린데 어디 그런 소리를 해요?

南 (朴秀蒼) : 그래서 우리가 例示를 한거예요.

北 (김세진) : 대표도 못 믿겠다. 공동위원회도 못 믿겠다. 믿지 못해서 유일팀 못하겠다는 소린데, 어디 그런 소리를 하는가 말이에요? 예?

南 (朴秀蒼) : 79년도, 84년도 우리가 單一팀 問題를 지금 한두번 協議하는 게 아니예요.

北 (김세진) : 말을 조심하시라구. 조심하시라구 예?

南 (朴秀蒼) : 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도 協議가 되지 못하고 또 누락이 된게 있으면 또 거기서 해야하는 것이지.

北 (장 웅) : 「10항」, 「10항」 기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단일팀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어디서 討論하게 되어있습니까?

南 (朴秀蒼) : 그러니까 공동위원회가 과연 이 상태로 해가지고는 발족이 될런지도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北 (장 웅) : 왜 발족이 안됩니까? 왜? 난 도대체 이거.....

南 (朴秀蒼) : 왜? 과거가 있기 때문에.

南 (曹英承) : 親善競技 한번 하자는데 그것도 못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공동위원회.....

南 (朴秀蒼) : 아! 79년에 그런 모양이 됐지! 84년에 LA때도 그랬지!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인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

자 이겁니다.

北 (김세진) : 그래서 共同委員會에서 토론하기로 다 되었으니까 共同委員會에서 토론하자는 것인데, 共同委員會에서 토론하자는 건 우리 소리가 아니라 쌍방이 합의했고, 이렇게하자고 결정됐는데, 그럼 그대로 해야지 이걸 뭐 판에 박힌 얘기다 여기서 해야된다고하면 이게 생떼지 이게 뭐요?

南 (朴秀蒼) : 생떼가 아니지.

北 (김세진) : 아 그러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기 위한 문제 먼저 토론하자 이거요. 그 중요성을 인정하시는데, 그것 먼저 빨리 토론하자 이거요.

南 (曹英承) : 김세진대표! 공동위원회가 發足되고 난 뒤에 문제를 지금 생각해 이 회담에서 이야기를 못한다는 겁니까? 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까?

北 (김세진) : 공동위원회에서 토론하기로 합의한 문제가지고 뭣 때문에 이야기 합니까?

南 (曹英承) : 합의를 해야 공동위원회가 발족이 되는거고.....

北 (허혁필) : 토론하자는 건데 발족됐는가 하는건 뭐요 그건 또? 빨리 발족시키게 하자는 건데.

南 (曹英承) : 설사 이 문제는 공동위원회에가서 토의하자 했더라도 아직 공동위원회에 가기까지는 本會談에서, 아 그것은 그때가서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北 (장 응) : 지금 하자하면 그 다음 또 내놓고, 또 내놓고.....

北 (김세진) : 아니, 5개월동안 우리가 唯一팀 구성을 위한 합의를 10가지를 추려서 지금 토론을 해서 내놓았는데,

오늘 합의하고 내일 또 문제를 제기하고 또 모레 또 하고 또 제기를 하고 이런식으로 해요? 이게 정당하오?

南 (曹英承) : 이젠 더 없어. 이게 전부니까 그것만 同意하면 끝나는 거요.

北 (김세진) : 언젠 뭐 없다 그랬지 뭐 있다 그랬어?

南 (任台淳) : 자! 장선생 자 우리 정리합시다.

北 (장 웅) : 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 別途合意書의 發言內容이 共同委員會에서 토의할 대상의 문제라는걸否認합니까?

南 (朴秀蒼) : 거기 이전에 이루어져야될 문제들입니다.

北 (장 웅) : 하니까 이자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南 (朴秀蒼) : 공동위원회에서 토의되어야할 사항들이 아니에요.

北 (장 웅) : 이거 완전히 또 뒤집는구만.

南 (朴秀蒼) : 그리고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못믿겠느냐며는 세상에 名稱하나만 보아도 보십시오! 뭐 세글자로 표기하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세요? 마지막까지.

北 (장 웅) : 曹先生! 이제 우리에게 이거 문제토의에 관심이 있나하고 이제 거 물었는데, 이제 이거 우리하고 얘기했는데 문제토의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유일팀을 구성하자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떡하나 빨리 속한 시일내에 18일입니다 本會談 18일, 18일이기 때문에 일체 복잡한 문제를 자꾸 여기에 내놓지 말고, 이미 본회담에서 우리에게 위임한 委任事項을 하는 것이 實務代表의 임무다 이겁니다.

南 (任台淳) : 장선생! 내 얘기를 분명하게 하겠는데, 지금 귀측의 얘기를 들어보며는 이미 의견이 일치된 부분에 대해서 文章化만 다듬자하는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실제 일이 성사되도록 하자 하는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늘 귀측의 주장들을 보며는 정말로 관련이 없는 문제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파탄을 전제로 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用語들을 쓰고 있는데, 귀측이 이러한 우리의 성의있는 案에 대해서 이와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共同委員會 構成自體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난 귀측이 共同委員會까지는 구성을 할려고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共同委員會 構成自體에 대해서도 意志가 있는지 그야말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情況에 이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놓고보며는 결국 合意文書를 생산했다하는 그거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1년동안 會談을 해 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조금전에 曹代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貴側은 卓球會談을 할적에 單一팀으로 나간다는 原則에만 먼저 合意를 하자. 原則에 먼저 合意하지 않으면 具體的인 內容을 討議할 수 없다. 오히려 原則에 合意만을 얻어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努力을 했던 생각이 문득 납니다.

지금 이 會談에서도 貴側은 어떠한 態度를 보이고 있는가? 北京大會에 單一팀으로 나가기로 原則的인 合意를 했다. 原則的인 合意만을 얻어내놓자 하는데 온통 精力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늘 貴側의 態度에서는 그러한 立場이 明明白白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會談에 임할적에 單一팀 構成·參加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立場에서 이 會談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疑心까지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이러한 狀況에 이르렀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北 (장 웅) : 그러니까 지금 結束發言하는 겁니까 예?

南 (任台淳) : 아니 나로서는, 아니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로서는 이와같이 貴側의 立場에 變化가 없는 限 오늘 더 會談을 해보아도 나는 큰 成果를 期待할 수가 없겠다는 確信을 表明을 합니다.

따라서 貴側이 이 附則問題, 우리는 이 附則 꼭 附則이라는 用語를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을 保障하기 위한 이 保障裝置問題에 대해서 誠實하게 討議할 立場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뭐 밤을 세워서라도 나는 討議를 계속하자고 하는 用意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에 대한 討議를 回避하고 10個項 文案調整만을 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와있는 立場이라면 아마 이것은 立場을 다시 調整을 해가지고 會談에 나오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뭐 말씀해보세요.

北 (김세진) : 아이 거 會談 무슨 誠意가 뭐 어쩐다 하시는데.....

南 (任台淳) : 아니 장선생 말씀하세요. 장선생 意見을 좀 이야기해보세요.

北 (장 웅) : 그러니까 結束하자는 겁니까?

北 (김세진) : 會談이 成事가 안되니까?

南 (任台淳) : 아니 장선생 얘기를 들어보세요.

北 (장 웅) : 아니 글썄 結束하자는 겁니까?

南 (任台淳) : 아니 會談이야 相對方이 있는 것이니까 내 意見을 이야기 했으니까 또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北 (김세진) : 이거 4次 實務代表接觸 때부터 지금 會談이 成事가 안되는데 왜 안되는가 이게? 이게 우리 때문에 안되오?

南 (任台淳) : 아니 이럴거예요? 아니 막판에 와서 이럴거예요 정말? 아니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거예요?

北 (김세진) : 貴側에서 이런 것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소? 이게 明白하지 않소?

北 (장 웅) : 우리 김세진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北 (김세진) : 4次 實務代表接觸 때 우리 成事가 안되었고 오늘 會談도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야 事實이 아니요 지금?

南 (任台淳) : 아니 정말 안되겠구만 이 사람들.

北 (장 웅) : 아니 이사람들이라니요?

南 (任台淳) : 이래 가지고 안되겠어요.

南 (朴秀蒼) : 좀 점잖게 發言하세요.

南 (曹英承) : 김세진대표! 여기 代表가 이야기했으면 그쪽 代表가 또 말을 받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會談이 進展이 되는 것 아닙니까?

北 (김세진) : 代表가 이야기를 하면 난 또 代表인데 이야기를 못하오?

南 (曹英承) : 거 首席이 또 있잖아요? 首席에서 首席한테 이래 물었으면 그래 해야지 禮儀를 갖추어서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北 (김세진) : 말이야 똑바로 해야지 말이에요. 會談이 成事되지 않는 것이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안되는가 하는 것을 明白히 하나 해야되겠어요 이게 지금.

北 (장 웅) : 그래서 이야기 좀 합시다.

南 (任台淳) : 오늘 정말 안되겠어요.

北 (장 웅) : 거 任先生 축구를 하신 體育人인데…….

南 (任台淳) : 나는 장선생을 그렇게 보지 안했는데 영 오늘 보니까 안되겠구만.

北 (장 웅) : 축구선수인데, 축구를 하신 先生이 그 말씀하는걸 들으니까 우리 立場을 전혀 理解를 못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合意文書を 生産했다는 것을 發表하는데만 關心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合意文書を 生産, 貴側의 말대로 하면 生産했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그것은 곧 唯一팀을 構成하게 되며 唯一팀 構成을 위한 共同推進 機構가 나오게 되며, 貴側이 한대로 하면 2月1日부터는 共同委員會가 이제 發足이 돼서, 보름 後에는 發足이 되어가지고 唯一팀 構成을 위한 事業에 着手한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왜 이것을 자꾸 마다 하느냐? 왜 이것을 자꾸 마다 하는가? 이것을 마다 하는데 問題가 있다. 眞實로 이것을 마다 하는데 問題가 있다. 誠意와 意志問題를 이야기했는데 말로만 誠意와 意志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眞實로 誠意와 意志가 唯一팀을 構成하는 길로 가도록 促進이 되고 이것을 빨리 構成할 수 있도록 그런 誠意와 意志가 表示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貴側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會談 唯一팀 構成을 回避하는 問題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唯一팀 構成을 回避하는 것은 實質的으로 貴側입니다.

지금 이런 複雜한 複雜多端한 文書놀음을 우리보고 한다고 했는데 複雜多端한 文書들을 막바지에 와서 來日 모레 글피면 18日날 署名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막바지에 와서 내놓고 會談을 複雜하게, 實務代表接觸을 複雜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貴側이 唯一팀 構成에 眞實로 이 共同委員會 構成에 北側이 關心을 가지고 있는가 疑心한다고 했는데 貴側에서 共同委員會 構成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 共同委員會 機能條項에다가 「10.其地條項」을 넣었습니까? 이것은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해야 될 對象에 問題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問題에 대해 이 지금 卓위에 써놔놓고 여기서 지금 討議를 하자. 이 意圖가 眞意圖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會談을, 實務代表接觸이나 本會談을 이런 式으로 해서는 이거 唯一팀을 構成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오늘 實務代表接觸에 나올 때 그래도 貴側에서 이것 理致에 맞지않고 또 雙方 合意事項에 違反되는 問題들을 撤回하고 會談을 좀 進展시킬 수 있겠다는 이런 한 가닥 希望을 가지고 나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遺憾스럽게도 오늘 接觸에서 貴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貴側은 오늘 接觸에 나와서도 從前과 같이 不當한 主張을 固執함으로써 오늘 接觸의 進展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唯一팀 構成을 바라는 온 거래에게 큰 失望을 주었고 우리 會談에 더 높은 障礙를 더 쌓아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貴側이 深思熟考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두차례 實務接觸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眞心으로 唯一팀 構成에 關心을 가지고 있고 누가 唯一팀의 앞길에 難關과 複雜性을 人爲적으로 造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明明白白해졌습니다.

審判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온 거래와 歷史가 합니다.

南(曹英承) : 그것을 미리 써가지고 나왔군요?

北(장웅) : 貴側은 그 어떤 手段과 方法으로 이 唯一팀 構成앞에 障礙

를 造成한다고 하더라도 그 責任에서, 唯一팀 構成을 回避한 이런 責任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南 (曹英承) : 그런 文章을 미리 써가지고 나왔네요? 그것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北 (김세진) : 이런걸 이제 우리 世上에다 다 그대로.....

北 (장 웅) : 世上에다 다 그대로 展開하갔어요.

北 (김세진) : 그래서 全體 民族이, 全體 世界人民들이 裁判하게 하잔 말이예요. 이제는, 이걸 그대로 全文 다.....

北 (장 웅) :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면 貴側이 쓸데없는 文件들 지금 잔뜩 지금 여기에 놓고 唯一팀 構成앞에 이 難關을 造成했는데 이것을 撤回해야 됩니다.

南 (曹英承) : 안하려고 作心을 하고 文書上으로 써서 그래 나왔구만, 그걸 보고 읽어가요?

北 (장 웅) : 그렇게 함으로써 唯一팀 構成에 대한 貴側의 實踐意志를 行動으로 表示해야 됩니다. 行動으로, 行動으로 表示해야 됩니다.

南 (任台淳) : 장선생 이제 말씀 다하셨어요?

北 (장 웅) : 行動으로 表示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重視합니다.

南 (任台淳) : 음 發言 다 하셨습니까?

北 (장 웅) : 예, 重視하며 앞으로 만일, 앞으로 만일 貴側이 이런 不當한 主張을 固執해서 唯一팀 構成에 큰 障礙를 덧 놓아서 唯一팀 構成이 안되는데 대해서는 全的으로 그 後果에 대해서 貴側이 責任져야한다는걸 深刻히 이야기를 합니다.

南 (任台淳) : 자 말씀 다 하셨습니까?

나는 지금 장선생이 마지막에 文書를 읽어나가면서 意見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오늘 接觸에 나오는 初期에부터 이제 그러한 느낌을 가졌습니 다만 完全히 오늘 接觸은 마음을 먹고 이것을 破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作心을 하고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感을 느끼게 됩니다.

그야말로 責任轉嫁를 위한 發言을, 말하자면 이 會談이 안되고 그럴 경우를 想定을 해서 責任轉嫁를 위한 發言을 아주 準備를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보니까 오늘 接觸의 過程을 보며는 相對側이 내놓은 案을 가지고 『이것을 撤回를 해라, 撤回를 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되겠다』해서 一方的으로 文案整理만을 하는 그러한 接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呼應을 하지 않으면 一步의 前進도 期待할 수가 없는 이러한 確固한 立場을 가지고 나왔었다 하는 것을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確認을 했습니다.

北 (김세진) : 우리 立場은 確固합니다.

南 (任台淳) : 아니 가만히 계세요!

北 (장 웅) : 예, 우리의 立場은 明白합니다.

北 (허혁필) : 우리 立場은 明白합니다.

南 (任台淳) : 그래서 우리의 立場을 뭐 누누이 밝혔음에도 不拘하고 그렇지 않으면 會談을 이제 뭐 그러면 立場이 明白하면 會談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北 (장 웅) : 그러니까 撤回를 하라, 撤回하라. 그것 툭 털어버리세요 그거.

南 (任台淳) : 『撤回를 하지 않으면 會談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구

만 그러면?

北 (장 웅) : 그러니까 附則과.....

北 (김세진) : 會談 앞에 障礙物을 造成한 걸 없애야 會談에 나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南 (任台淳) :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北 (장 웅) : 아니 계속 아직 하는겁니까?

南 (任台淳) : 貴側은 말입니다. 지금.....

北 (장 웅) : 계속할거 있어요?

南 (任台淳) : 아 해야죠.

北 (장 웅) : 예, 하세요.

南 (任台淳) : 貴側은 지금 우리보고 『障礙物을 造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貴側이야말로 이것은 文書上의 合意만을 빨리 生産을 해놓고 그 內容은 알맹이가 빈 껍데기만 만들어도 좋겠다 하는 그러한 立場으로 一貫이 되고 있는 한에는 이 單一팀은 成事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確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北 (장 웅) : 成事가 안된다? 成事意志가 안된다?

南 (任台淳) : 왜냐? 貴側은 合意事項의 履行保障을 못하겠노라 하는 것을 事實上 公言하는 것으로 밖에는 우리가 解釋할 수 없습니다.

北 (장 웅) : 이제 그 속셈을 이야기하는구만. 이제야 그 속셈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南 (任台淳) : 적어도 이 附則事項에 대해서 討議조차도 못하겠다 하는 것은 合意事項 履行保障에 대한 意志가 하나도 없노라 하는 것을 公言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認定을 합니다.

따라서 이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에 대한 誠實한 態度가 보여지지 않

는 限 이 會談의 進展을 期待할 수 없다. 우리는 確固한 履行保障裝置
를 確實하게 그리고 強力하게 貴側에게 要求한다고 하는 이러한 立場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적어도 貴側이 單一팀 成事에 關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履行保障裝置問題에 대해서 肯定的인 關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強調를 해두는 바입니다.

北 (장 웅) : 다 말씀 다 했습니까?

北 (허혁필) : 履行保障裝置問題는 다 나왔는데…….

南 (曹英承) : 자 이제 그런 內容들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시고.

北 (허혁필) : 가만 내가 좀 이야기를 하자요. 내가 얘기 좀 합시다.

南 (曹英承) :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時間만 자꾸 간다고요.

北 (허혁필) : 履行保障裝置問題는 貴側에서 要求한대로 最終 當局에서 保障
覺書를 交換하는 것까지 그쪽에서 要求를 했기 때문에 다 주었습니다.
그건 더 擧論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건데는 貴側은 이 唯一팀이 깨질 것을 前提로 하고 마지못해
이 會談에 나온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갑니다.

南 (曹英承) :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되죠.

北 (허혁필) : 함부로 하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는걸 다 됐는데…….

北 (장 웅) : 貴側에서 지금…….

南 (曹英承) : 우리가 貴側을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北 (장 웅) : 우린 貴側을 그렇게…….

北 (허혁필) : 다 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複雜하게 만드는가? 다된 會
談앞에 무엇 때문에 이런 難關을 造成하는가? 이것만 봐도 같습니다.

南 (曹英承) : 허대표! 그런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北 (허혁필) : 以前의 1979年度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까지 뭘 꺼내? 또擔保問題 1979年度 때도 既得權 問題를 貴側에서 들고 나와서 처음부터 單獨으로 갈 것만 생각하고 하다나니까 唯一팀 이것 됩니까? 이번에도 딱 같다 그거예요.

南 (曹英承) : 거 唯一팀이 안되었으면 單獨팀으로라도 나갈수 있어야죠. 우리가 會員國인데 그런 權利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北 (허혁필) :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前提로 해가지고.....

南 (任台淳) : 자 장선생! 어떻게 繼續 이렇게 個別의 論爭을 繼續할까요 우리?

北 (허혁필) : 듣고 얘기하세요 듣고.

南 (朴秀蒼) : 當然히 既得權을 認定했었어야지.

南 (曹英承) : 合意가 안되었으면 우리 따로 따로, 貴側에서도 나갔어야 될 거 아녜요?

北 (허혁필) : 듣고 얘기를 하세요 듣고. 예 듣고 하십시오.

北 (김세진) : 아 이거 複雜하구만 좀 점잖게 하자구요.

南 (任台淳) : 점잖게 대하기가 어려운 狀況이에요.

北 (장 웅) : 제일 말 크게 하는 사람이 曹英承先生이야.

北 (김세진) : 曹先生은 代表가 싸움꾼이야 싸움꾼. 글썽 안그러던데 말이야.

南 (曹英承) : 合意가 안되었으면 우리라도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北 (김세진) : 이 會談이 항상 曹先生 때문에 複雜해진단 말이야. 싸움판만 벌이자고 자꾸 하거든 싸움판만?

北 (허혁필) : 가만 내 그것 마저 이야기를 하자요. 基本上 다 合意됐는데

이런 問題를 便紙보내자. 이건 事實 남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事實이야 不履行되거나 뭐이 안될 경우에 그런 경우를 豫見하더라도 그런 말을 어떻게 이런 상스럽게 막 發說을 하는가.

南 (任台淳) : 아니 그러면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몰래 하자는 건가? 事實대로 알려줘야죠 事實대로.

南 (朴秀蒼) : 아니 確實히 해줘야지요. 確實히 해줘야지 그것을.

北 (허혁필) : 하자는 생각이 있다면.....

南 (任台淳) : 事實을 숨기는 일이 있어가지고는 絶對로 이것은 成事가 안됩니다. 事實을 다 까밝혀야지.

北 (허혁필) : 좀 들으시요! 좀 들으라요, 내 마저 이야기를 하겠어요.

北 (장 웅) : 자꾸 이야기를 하시오.

南 (曹英承) : 장웅대표! 貴側 NOC에 關係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北 (허혁필) : 좀 듣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南 (曹英承) : 장웅대표가 貴側 NOC에 關係하고 있다면.....

北 (허혁필) : 만일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問題를 감히 입밖에 낼 수 없다. 그건 또 이제 後의 問題고 지금 다 된 마당에 와서 깨질걸 前提로 하고 이거는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걸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또 더욱이 입밖에다 이거 노골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부끄러운 問題입니다 부끄러운 問題.

南 (曹英承) : 單一팀 成事意志가 強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保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解釋해야 될 것입니다.

北 (허혁필) : 천만의 말씀. 예, 마저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全過程을 보면 貴側이 아무래도 할 것 같지 않다. 다 된 마당에 이런 複雜性을

造成하는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사람들로 보겠는가?

南 (曹英承) : 아니 우리 案 내놓은 것 그대로 하면 끝나는데 왜 안하라고 그러니까?

北 (허혁필) : 그래서, 그러나 이 안될 경우에 돌아갈 責任에 대해서는 느껴야 됩니다. 이 唯一팀에 대한 거래의 期待가 컸던 것 만큼 이에 대한 責任追窮도 그만큼 클 것이다.

지금까지 全過程을 보면 다된 會談 앞에 이렇게 難關을 造成해서 附則이요 附屬合意書 몇개 이런 難關을 造成한 사람들이 이게 과연 이 會談 妥結 最終段階에 와서 이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이거 하자는 건가? 이것은 온 民族이 審判할 것입니다.

南 (朴秀蒼) : 거래앞에 失望을 주지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예요.

北 (허혁필) : 거래앞에 失望을 안주려면야 응당 本會談, 이제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10個項을 빈 껍데기라고 그랬는데 10個項이 빈 껍데기입니까?

北 (장 응) : 빈 껍데기를 지금까지 討論했습니까, 빈 껍데기를?

北 (허혁필) : 빈 껍데기를 열달동안이나?

南 (任台淳) : 알맹이를 채우자 이것입니다 알맹이를.

北 (김세진) : 10個項을 빈 껍데기라면 무엇이 알맹이요?

南 (任台淳) : 알맹이를 다 채우자 이것예요.

北 (김세진) : 지금까지 10個項은 빈 껍데기로 보고 附則은 알맹이로 보고 이렇게 보는 觀點이 벌써 틀려먹지 않았소?

南 (任台淳) : 말을 뒤집어서 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말을 뒤집어서 들으니까 그러는 것이예요.

北 (장 응) : 共同委員會를 虛空에 띄워 놓는다. 共同委員會가 빈 虛空이야.

北 (김세진) : 10個 事項은 빈 껍데기고 附則은 그 알맹이고?

南 (任台淳) : 10個項이 어떻게 빈 껍데기인가? 아니 10個項이 몸체이고.

北 (허혁필) : 曹先生이 共同委員會 問題 討論하니까 황홀해진다고 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南 (任台淳) : 허대표! 그러면 우리가 附則條項을 이렇게 強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附則條項을 撤回하지 않는限 이 會談 안되겠다 하는 그런 意思 인지의 與否를 다음번에 分明히 좀 밝혀주세요.

北 (장 웅) : 그래서 다음번에 뭐 밝힐거 없어요. 우린 明白합니다. 이미 여러차례 밝힌건데 그 附則이다 그거 다 털어버리쇼. 털어버리면 그제 이제 당장 文項整理 간단히 하면 된다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南 (任台淳) : 그러니까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는 못하겠다?

北 (허혁필) : 保障裝置야 다 되었는데 무슨 事情이 있습니까?

南 (任台淳) : 우리로서는 貴側이 내놓은 이야기 처럼 保障裝置가 되었다고 認定할 수 없습니다.

北 (장 웅) :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實務代表接觸은 貴側에서 이미 本會談에서 우리에게 委任한 實務代表들이 應當해야할 事項인 이미 合意된 2個 文件, 2個 文件을 文項整理를 하겠다면 다음 實務代表接觸을 합시다.

南 (曹英承) : 그것 무슨 얘기에요?

南 (任台淳) : 아니 그러면 實務代表接觸을.....

北 (장 웅) : 그건 오늘 午後도 좋고 來日 아침도 좋고 오늘 밤도 그러니까.

南 (任台淳) : 아, 그러니까 그러한 條件附加 아니면 實務代表接觸을 繼續할 수가 없겠다 그런 얘기로군요?

北 (장 응) : 그래 文項整理를, 文項整理를 합시다. 文項整理 하겠습니까?

南 (任台淳) : 알겠습니다. 合意事項 保障裝置問題 討議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은 안하겠다?

北 (장 응) : 合意事項 保障裝置야 이미 지금 文件주었지요. 當局覺書와 올림픽委員會 合意書 이제 주었으니까 文項整理를…….

南 (任台淳) : 아니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가 그게 아니지요.

北 (장 응) : 이미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合意事項 保障裝置를…….

南 (任台淳) : 그것은 6가지, 7가지중의 한가지에 不過합니다. 그것은 當局間에 文書를 交換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同意할 수 있는데 실제 行動이 隨伴되는…….

北 (장 응) : 아 그거면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지 그 以上 더 훌륭한 保障裝置가 어디 있습니까? 야 과연 답답하구만.

南 (任台淳) : 아니 行動이 隨伴되는 合意事項에는 同意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北 (장 응) : 우리를 理解를 못하누만, 전혀 理解를 못하누만.

南 (任台淳) : 그러면 實務代表接觸도 그만하자는 뜻인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貴側의 態度變化를 기다려가지고 來日이나 모레라도 接觸을 한번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北 (장 응) : 합시다, 합시다.

南 (任台淳) : 그래 貴側이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에 대해서 討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來日이고 모레고 討議를 더 한번 해봅시다.

北 (장 응) : 우리는 貴側에서 文項整理를 하기위한 實務代表接觸을 가지자면 그저 오늘 午後도 좋고 오늘 밤도 좋고 來日도 좋습니다. 그래 文

項整理를 합시다.

南(任台淳) : 그러면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問題는 더 以上 討議를 못하겠
다?

北(허혁필) :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問題야 하자는거 아네요?

南(任台淳) : 거 왜 雙手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北(허혁필) : 우리 생각이 같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는거 아네요?

南(任台淳) : 合意書 履行保障裝置가 지금 當局間에 交換하는 것은 履行保
障을 뒤에서 支援·協力하겠다는 것입니다. 用語 그대로.

北(허혁필) : 그게 保障覺書죠.

南(任台淳) : 이 用語 그대로 말하자면 支援·協力を 하는 것들이고, 이
體育人들간의 會談인데 體育人 스스로가 履行保障을 할 수 있는가?

北(장 웅) : 올림픽委員會가 그거면 됐지 거기에 무슨 또 올림픽委員會,
當局.....

北(김세진) : 保證하고 뭐고 올림픽委員會가 하면 되지 뭐.

南(任台淳) : 그 內容에 대해서는 討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北(장 웅) : 共同委員會에서 할 所管이예요 共同委員會에서 할 所管.....

南(任台淳) : 아니 그러면 體育人들이 실제 오고가는 問題는 하지 않겠다?

北(장 웅) : 共同委員會에서 할겁니다 共同委員會에서, 이미 指摘되어 있어
요.

北(김세진) : 그 問題야 共同委員會에서 할건데 왜 자꾸 그러는가? 이거
共同委員會에서 하자는데?

南(任台淳) : 아니 貴側 말마따나 共同委員會에서 할 것 같으면 왜 그
以前에는 못하겠다는건가?

北(장 웅) : 자, 共同委員會는, 共同委員會는 왜 내옵니까 共同委員會?

北 (김세진) : 共同委員會에서 또 하자고 그렇게 合意를 했는데 말이예요.
合意한대로 해야지 말이죠.

南 (曹英承) : 끝까지 이렇게 뭐 화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거요?

南 (任台淳) : 자 接觸日字도 定하기 싫다?

北 (김세진) : 말도 안되는걸 자꾸 하니까 답답해서 그러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南 (曹英承) : 말도 안되다니요?

南 (任台淳) : 참 오늘 成果가 이렇게 없이 헤어지려니까 아주 참말로 表
現하기.....

北 (장 웅) : 그래서 그저 오늘 밤도 좋고 그저 來日 아침도 좋고 그저
文項整理합시다. 文項整理하면 그저 모레 또 글피 18日날인데 제각 署名
하자요.

南 (任台淳) : 아니 장선생!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文項整理를 하고 싶죠?
나도 文項整理를 빨리 하고싶습니다. 그러니까 本會談 委任事項이 合意事
項 履行保障裝置를 討議해서 文項整理를 하기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저 合意事項, 本會談의 合意事項 가운데 어느 한 部分만
을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本會談의 合意事項
두가지를 다 履行을 하는 方向에서 우리 그렇게 誠意를 좀 보여줄 수
없겠어요?

장선생!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간청을 해봅시다.

北 (장 웅) : 나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얘기하
는데 이거 심중히 얘기하는건데 잘 그저 얘기를 들어주소. 이제 날짜
3日 남았습니다 3日. 3日 동안에.....

南 (任台淳) : 3日이면 充分하죠.

南 (曹英承) : 3日 동안에 뭐 무슨 난리가 납니까?

北 (장 웅) : 3日 동안에 貴側에서 文項整理를 위한, 文項整理만 하면 이것은.....

南 (任台淳) : 아니 條件附입니까 그게?

北 (장 웅) : 예, 文項整理만 하면.....

南 (任台淳) : 그래 이게 꼭 條件附라는 얘기인데.

北 (장 웅) : 우리는 條件附라는 얘기 한적이 없어요. 文項整理를 하도록 實務代表接觸을 합시다. 그거 뭐 간단한건데 그거 複雜한 걸 들고 나와서 그거 털어 버리면 그거 뭐 또 하긴 뭐 任先生 혼자 決心 아니겠으니까.

南 (任台淳) : 자 그러면 合意事項 履行保障은 못하시겠다?

北 (김세진) : 세상에다 대고 10個 우리 合意事項하고 共同委 構成·運營細則에 대한 것 수표를 하고 세상에 公開해버리면 唯一팀 됩니다. 다 그렇게 된다고 認定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北 (장 웅) : 아니 理解를 지금 잘못한다 이거예요 理解를.

北 (허혁필) : 公開하면 다 되는데 그걸 무엇 때문에 딱 이 막까지 와서.

北 (장 웅) : 그거 이 複雜한 것을 왜 내놓습니까 왜? 이런 複雜한 것을.

南 (任台淳) : 자 그러면 뭐 貴側에서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討議할 생각이 있지 않은 以上에는 우리가 뭐 만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로구만?

北 (허혁필) : 말은 바른대로 하십시오.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안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요?

南 (任台淳) : 그러니까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에 대해서 討議를 할 생각이 있다할 것 같으면 뭐 貴側은 中間에라도 連絡이 오겠는데 그렇지 않은

以上에는 實務代表接觸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看做할 수 밖에 없습니다.

北 (장 웅) :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 (任台淳) : 一方에서 뭐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자고 해보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러면 18日날 또 만나야 되겠네요? 18日 本會談에서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눠봅시다.

北 (장 웅) : 그래서 이 電話도 있으니까, 電話도 있으니까 그저 돌아가서.

南 (任台淳) : 그래 電話 주시겠어요?

北 (장 웅) : 이 文項整理를 그저 해서 18日에 署名할 수 있게 하실 意思가 있으면 그저 連絡을 하십시오. 하면 언제나 그저 우리는 밤중에라도 내려오겠으니까 그저 文項整理를 해야 됩니다.

거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我田引水格으로 지금 자꾸 自己式대로 解釋을 하는데 『履行保障裝置를 討議하지 않겠다』 지금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履行保障裝置 貴側에서 내놓은 것이라는 게 共同委員會 所管인 것입니다.

南 (任台淳) : 언제 履行保障裝置 討議하겠다고 했습니까? 안하겠다고 했지 貴側에서?

北 (허혁필) : 누가 履行保障裝置 안합니까? 아니 왜 틀리는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서? 履行保障裝置라는게 뭐인가? 말 自體를 理解 못하다 나니까 그렇지. 單語自體를 理解 못하고 하는데.

北 (장 웅) : 履行保障裝置가 當局의 覺書, 올림픽委員會간의 合意書, 아 이거면 되지.

南 (任台淳) : 아니 자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履行保障裝置는…….

北 (장 웅) : 그것 다 必要없어요. 그저 附則, 附屬合意書 털어버리시요.
그 複雜한 거 말이야.

南 (任台淳) : 자 그러니까 履行保障裝置는 할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이 貴
側의 主張이다 하는 것을 確認을 했는데…….

北 (허혁필) : 履行保障裝置야 다 내놓지 않았소? 다 나와 있는데 그 말
自體를, 그 말 自體까지…….

南 (任台淳) : 아니 정말로 履行保障裝置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

北 (장 웅) : 다 나와있지 않아?

北 (허혁필) : 履行保障裝置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南 (任台淳) : 아니 文書交換은 하겠는데 行動은 뒤따르지 못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貴側의 얘기가?

北 (장 웅) : 그러니까 貴側에서는 附則과 附屬合意書는 털어 못 버리겠다?

南 (任台淳) : 우리는 文書와 함께 行動을 서로 보여주자 하는 겁니다. 貴
側은 文書만 보여주자 그렇죠?

北 (장 웅) : 우리는 지금까지 行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발자욱을 좀
接近해오쇼. 한번도 讓步가 없구만.

南 (任台淳) : 자 이제 그 程度로 해 둡시다. 뭐 우리 立場이 分明히 밝
혀졌으니까 자 악수나 하고 헤어집시다.

南 (曹英承) : 우리 立場이 明白해졌으니까 그만 합시다.

南 (任台淳) : 자 手苦하셨습니다.

北 (장 웅) : 자, 曹先生! 툭 털어버리고, 툭 털어버리라고요.

南 (曹英承) : 繼續 이러다간 情들겠어요. 본래 싸우다가 情든다고. 자 잘
감시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錄〉

代 表 團 記 者 會 見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日時：1990. 1. 15 (月) 13:13~13:50

*場所：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發表 및 答辯：任台淳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그러면 오늘 第5次 實務代表接觸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시부터 12時 50분까지 2時間 50分 동안 接觸이 있었습니다.

오늘 接觸에서 討議된 內容은 지난번 第6次 本會談에서 雙方間의 合意에 따라서 10個項 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한 10個項에 意見一致를 본 것을 토대로 해서 이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을 위한 履行保障裝置를 마련하는 問題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意見一致를 본 것을 토대로 해서 合意事項 文案全般에 대한 文案整理를 하기위한 그러한 接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第4次 接觸 때에 合意書를 作成하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構成要素가 있다. 合意書에는 前文部分이 있어야 되겠고 10個項을 몸통으로써 本文으로 집어넣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합의사항 이행보장과 그밖에 효력 등의 조항과 관련해서 附則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날짜와 署名欄이 들어가고 다섯번째로는 위에 合意事項들의 內容에 따라서 별도의 합의서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合意書와는 별도로 雙方 當局이 合意事項 履行保障을 적극

支援・協力하겠다고 하는 覺書를 交換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는데 北韓側은 지난번 접촉 때에 前文部分과 또 當局의 履行保障 覺書 交換에는 지난번에 同意를 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附則을 설정하는 問題와 關聯해서도 쌍방간에 合意書 용어에 대한 解釋問題라든가 또 그밖에 체육외적문제를 結付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問題라든가 등등 問題에 대해서 研究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檢討를 하겠다하는 態度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接觸에 나와서는 北韓側 태도는 전혀 그때보다는 경직이 돼있는 이러한 立場으로 임했습니다.

즉 뭐냐하면 10個項의 文項整理와 또 單一팀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에 文項整理만을 오늘 接觸에서 討議를 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提案한 모든 것들을 철회를 해야지만 되겠다 그러한 立場으로 초지일관하는 그러한 態度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立場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合意書에 들어갈 주요한 기본골격에 대해서 쌍방간에 먼저 意見一致를 보고난 연후에 문항정리를 하자, 문항정리야 이것은 그야말로 몸체를 다 만들어 놓고난 후에 분장을 하는 정도의 일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건 일괄해서 處理를 하자 이러한 立場이었습니 다만 북측은 一步의 變化도 보이지를 않음으로 해서 오늘 會談은 사실상 아무런 進陟이 없는 가운데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측이 우리측의 요구를 撤回하라고하는, 적어도 회담에서 상대측이 내놓은 案을 撤回하라고하는 이러한 要求만을 하면 會談의 진척을 보기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融通性을 가진 그러한 立場을 가지고 實務接觸을 좀더 해가지고 18일 本會談을 갖도록하자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撤回하지 않는한 實務接觸은 더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서 1월 18일 本會談에서 쌍방이 다시 만나도록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會談이 끝날무렵에 이제 우리측이 얘기를 한 것은 북측이 끝내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 북측은 當局間에 保障覺書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이러한 立場입니다만 우리들로서는 적어도 合意事項 이행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우선 合意事項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해줘야 될건 보다 확실히 해줘야 되겠고 또 對外的으로도 OCA라든가 또 北京大會 組織委員會 등에 대해서도 通報를 해주야 될 것은 合意事項 內容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러한 立場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文書上에 합의로써만 우리는 그칠 것이 아니고 行動의 뒷받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意志를 서로가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북측이 이에 反對를 했고 따라서 이에 反對를 한다고 하는 것은 北側이 당초에 選拔競技를 對外的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숨어서 선발을 해놓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北側의 主張이 그 의도가 정말로 단일팀을 成事を 시킬려고 하는 것 보다는 文書上으로 먼저 원칙적인 合意가 이루어졌노라 하는 사실만을 얻어내려는데 급급했던 그러한 북측의 意圖를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좀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北側 態度에서 느껴지는 것은 初志一貫 文案整理만을 하자 이러한 立場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고 더욱이 終結 發言文까지 써가지고 와서 會談이 잘못되고 成事が 어렵게된 責任이 우리측에 있노라 이러한 發言文을 作成을 해가지고 나와서 마지막에 낭독을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態度를 보아서 북측이 이제 막상 단일팀 문제가 남북의 선수가 오가고 代表團이 서울·평양을 오가고 이러는 行動을 수반하는 이러한 단계에 이

르자 態度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이러한 結果를 자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代表들로서는 18일 會談이 예정되어 있고 또 이전에도 북측이 어느정도 態度에 變化를 보여준다면 또 接觸의 기회는 전혀 排除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代表團으로서 기대를 걸고 이 問題를 추진을 해 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會談에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 설명은 이런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接觸은 1月 18日날 다른 變動이 없는 한 本會談을 갖기로 되어있습니다.

雙方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具體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시다만 질문을 해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充分한 答辯을 드릴 생각으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 質疑·應答

質問 : 지난번에 南北間 共同委員會하고 共同事務局 등에 관한 57個項 세부 사항으로 장웅대표의 말에 의하면 57個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우리 實務接觸 때 내놓았던 案은 62個項으로 수정됐다 그러면서 文件을 보여주면서 우리측이 다시 내놓으면서 빨간줄로 고친 자리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變化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答辯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좀 具體적인 사항을 曹代表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共同委員會 構成·運營方案에 대해서는 지난 6次會談 때 우리가 合意書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도 方案이다 하는 것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측의 案을 제대로 檢討도 하지 않고 한 5분동안 이걸 들 적들적 해보고 나서는 그대로 우리측 案에 同意를 한다 이렇게 이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指摘을 했습니다만 이 共同推進機構 運營方案은 사실상 앞으로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실제 말하자면 기둥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機構에 대한 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만들어 놓은 案을 그대로 덩석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좋다 이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번에 이것에 대해서 討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答辯조차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實務接觸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項目別로 여기에 대해서 討議를 해가고 왜냐하면 10個項에 대해서도 基本 原則的인 合意를 본후에는 項目別로 우리가 討議를 해나가고 확인을 해온 것이 實務接觸이기 때문에 이 共同推進機構 運營方案에 대해서도 그러한 절차를 밟자 하는 立場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項目別 討議를 하기 위해서 細部的으로 좀더 檢討를 해본 결과 거기에 이제 공동추진기구의 원활한 運營을 위해서 細部的인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修正·補完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첫번째 案은 共同委員會 委員長을 올림픽委員會 委

員長으로 했었고 북측의 案을 볼 것 같으면 委員長 또는 副委員長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역시 이제 서울·平壤 오고가는 것은 북측에서 副委員長도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고 역시 副委員長이 適切하겠구나 해서 그러한 것을 바꾸었고 그리고 이제 共同委員會를 運營해 나갈에 있어서 필요한 細部機構, 內部的 細部機構 같은 것은 것을 예컨대 이제 運營委員會를 두는게 좋겠다든가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 意見으로서 提示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北側이 거기에 대해서 意見이 있다면 또 異意를 提起하면 되는 것이고 原案대로 合意를 하는게 좋겠다고 하면 그대로 또 討議를 해나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건데 이것은 原案대로 안하면 討議조차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不當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條項이 많다고 그러는데 나는 條項이 몇 조항이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데 內容으로 볼적에 우리 曹代表가 거기에 대해선 보다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曹代表가 좀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答辯(曹英承) : 거의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데 더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北側에서 會談中에서도 그랬고 오늘 記者會見에서도 이제 그러는데 몇가지 事項을 指摘하면서 不當하다, 이견 옳지 않다 하는 事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共同委員會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이 合意書가 지난번에 낸 것하고 지난번에 냈을 때 자기들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와 다른 사항을 냈다 하는 부분입니다.

57個 條項인데, 사항인데 66個條項 바뀌면서 수정한 부분이 27개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 부분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그러면 變更된 內容이 뭐냐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까.

변경된 內容中에서 우리가 서로 討論을 해야 될 사항이 3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任代表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共同委員會 委員長을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으로 한다. 우리가 이렇게 내었던 겁니다. 내었던건데 지난번 4次接觸때 그걸 副委員長級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바꾼것은 두가지 理由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北韓側이 委員長 또는 副委員長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뭐냐하면 共同委員會라고하는 것은 각 雙方에 NOC기능을 같음하지는 못합니다. NOC의 기능일부를 위임받아서 共同委員會라고 하는 그 기능만 수행하는 그런 별개의 組織입니다. 별개의 組織인데 그 NOC委員長이 이 委員長을 겸하게 되면 나중에 승의에 대한 최종보증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北韓側 의견이 좀 좋겠다 해서 北韓側 意見대로 우리가 수렴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共同委員會 간다고 생각했을 때 실지로 20명이 만나서 討論을 해나갈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10명이 만나서 얘기하는 本會談도 어려워서 實務代表接觸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런 문제는 제기되기 때문에 內部組織·運營에 있어서 필요한 運營委員會 制度를 두자 그래서 쌍방 3名씩 6名으로 하는 그런 運營委員會 制度를 두겠다하고 거기서 記載를 했습니다.

그부분 하고 그 다음에 共同事務局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문제 평양·서울에 두기로 했지만 그것은 지난번 案에는 쌍방 올림픽委員會 建物內에 둔다하고 우리가 제한적으로 文書를 만들었던건데 지난번 4次

接觸 때 그걸 修正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냥 建物自體까지도 우리가 제한하는 文句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좋지않다. 이래서 상호 편리한 곳에 둔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세가지가 우리가 바꾼 內容中에서 가장 重要的 部分이고 그 외에는 전부 토씨 내지는 낱짜 이런 것 조금조금 바꾼건데 그것은 별로 問題가 없는 겁니다.

저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토씨까지 바꾼걸 다 합쳐가지고 뭐 거대하게 바꾼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또 이렇게 돼야 되는 合理的인 根據가 있는건데 이번에 아예 討議도 안해 놓고 그것을 撤回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根本的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答辯 :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 더 있습니다.

條項이 많이 겹치게 돼서 이제 修正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共同委員會의 기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選手訓練 및 選手團 構成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도록 기능에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選手團 構成과 管理에 관한 사항을 기능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예컨대 訓練이면 合同訓練도 있고 단일팀 구성후에 強化訓練도 있는데 전에는 강화훈련을 選手團 管理에 관한 사항에다가 집어넣던 것을 이것을 訓練은 訓練을 한데다 몰자 해가지고 두번째 기능에다 넣던걸 첫번째 기능으로 옮기느라고 첫번째 기능이 細部項目의 표현이 말하면 결국 訓練을 말하자면 망라하다보니까 전부 바꿨어요.

그러다보니까 項目數로 보면 表現이 바뀌진건데 이걸 사실은 文項整理 作業에서라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선의에 의해서 調整을 해놓은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말하자면 合意事項을 뒤집어 엮는 거다 하는

식으로 北側이 말하자면 생트집을 잡은 셈인데 지난번 接觸때만 하더라도 修正된 內容을 보고 사실 장웅수석 저쪽 實務代表接觸의 首席代表만 하더라도 內容은 별개 아입니다.

그걸 인정까지 했었어요. 그랬던 것을 다시 이제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데에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質問 : 그 사람들 말은 『밥보다 된장 많고, 아이보다 배꼽이 크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밥보다 된장이 많은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細部的으로 가가지고는 크게 合意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答辯 : 예 그렇습니다.

答辯(朴秀蒼) : 거기에 대해서 補充說明을 조금만 드릴게요.

몇마디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항을 50 몇개항에서 60 몇개항으로 증가를 했다. 그 다음의 內容에 있어서 지금 우리 曹代表께서 설명은 共同事務局을 어디에다가 둔다. 共同委員長 級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共同委員會內에 실무적인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 왜 저사람들이 저런 문제를 자꾸 「클로즈업」시키느냐 하면 실지로 오늘 접촉, 實務代表接觸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논의해야 될 자리가 아입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니예요. 때로는 원래가 원래됐던대로, 예를 들어서 共同委員長을 NOC의 副委員長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게 아입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重要的 문제인 것처럼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실지로 우리가 내놓은 附則問題에 대한 討議를 회피하려는 그런 전술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質問 : 지금 附屬合意書가 네개로 되어 있죠? 네개로 되어 있는데 부칙은 일일일 해가지고 몇개로 되어 있습니까?

答辯 : 10개항입니다.

質問 : 10개항 附則에 네개 附屬合意書 있습니까?

答辯 : 그렇습니다.

質問 : 그러니까 지금 보실 때는 18일날 전망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答辯 : 현재로서는 北側이, 北側의 입장은 10개항과 6次 本會談에서 있었던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方案 거기에 대한 문항정리만을 하고서 서명을 하자. 지난번 접촉때 북측이 내놓은 案이라고 하는 걸 보면 前文조차도 없이 10개항을 짝 나열을 하고 뒤에다가 날짜도 집어 넣지도 않은채 양측 首席代表 署名만 턱 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合意書案이노라 해가지고 사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난 世上에 나서 이런 合意書라는 건 난생 처음본다하는 말까지 會談에서 사실 했었습니다만 적어도 合意事項의 이행을 위한 그러한 立場에서 회담을 할려고 할 것같으면 적어도 合意事項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북측의 입장을 보면 우선 單一팀으로 구성해서 參加하기로 했다는 合意 原則에는, 그리고 原則에 合意를 보고 그것을 발표하는 데에는 아주 열성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行動을, 行動으로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이러한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月 18日 회담에서도 북측이 實踐意志를 좀 드러내지 않는 한 成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국면에 도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質問 : 거의 저희들 생각에는 거의 이렇게 되면 장웅대표도 상당히 강경한 지금까지 보던 態度에서 가장 강경한 어조인데 결렬에 봉착한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은 진전된 것 같은데요?

答辯 :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보지를 않습니다. 會談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한 立場을 보일적에도 있고 물론 강경한 立場을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태도는 다소 會談에서 나오는 태도는 다소의 變化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팀을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적어도 北韓側이 스포츠정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만 된다면 우리가 北側을 믿을 수 있도록 行動만 보여 준다면 우리는 單一팀을 성사 시킬려고 하는 이러한 立場이기 때문에 18日날 모이는 것으로써 會談이 결렬되지 않겠나 우리 이렇게까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18日날 모여서 意見을 나누어 봐야지 북측태도를 좀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質問 : 지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행보장방안에 대해서 總理覺書 교환하는 試案도 내고 그랬는데 말이죠. 우리측이 北側 어떤 이행보장방안을 내도록 해가지고 어떤 어떤걸 明示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지요 북측에?

答辯 : 지난번 5次會談 때 우리가 이행보장방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基本的으로 내용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뭐냐하면 우선 體育外的問題를 개입시켜서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 또 合意書의 내용에 대한 用語解釋上的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불씨가 있는 채로 共同委員會에 넘겨서는 되지 않겠다. 따라서 그 불씨를 미리 제거를...해놓은..부분 그리고 이제 또 부득이한 일로 해가지고

단일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부대조치가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사항들을 관련 國際體育機關에 통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9월까지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는데 있어서 일정을 미리 잡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日程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문제를 제기를 하면 안되니까 日程을 준수를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效力을 언제 發生하도록 하느냐. 우리는 2月 1日 일날 하자고 그리고 저쪽도 동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效力을 언제 부터 發生하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條項들이 말하자면 합의사항 이행보장 장치 일환으로써 우리가 檢討가 되고 이러한 합의사항 모두를 잘 돼나가도록 쌍방 당국이 보장하는 保障覺書를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지난번 會談 때 우리가 북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北側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해서 합의사항 이행장치 문제는 實務接觸에서 토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文項整理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고 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당국이 보장하는 것만으로 充分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라, 撤回를 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會談이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質問 : 일정을 준수하라고 그랬는데 몇월까지 뭐하고 몇월까지 뭐하고 월별로 쪽 하셨습니까?

答辯 : 우리는 다 提示를 했지요. 이미 그건 5次, 6次 會談도 아니고 5次 會談때에 우리가 날짜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指摘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北側이 提示를 해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못하겠다는 거지요.

質問 : 북측에서 얘기하는 總理, 當局의 보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뜻에서 보장이라는 겁니까?

答辯 : 南北間에 말하자면 體育人들간에 회담을 해가지고 合意事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듯이 다섯가지 요소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前文에서부터 부속합의서까지 다섯가지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 合意가 이루어지면 그 合意事項이 잘 이행이 되도록 當局으로서 적극 뒷받침을 해주겠다. 말하자면 지원과 協調를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서 그것을 이제 對內外的으로 聲明을 하고 그 內容·文本을 상호 交換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答辯(曹英承) : 지금 任代表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附則에 들어가는 내용이 10個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 7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북한측에서 아주 신랄하게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첫째가 뭐냐하면 附則條項을 왜두느냐 하는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 어떤 회담이든간에 合意書를 만들어 놓으면 이름이야 附則이라하든 諒解覺書라 하든 의정서라 하든간에 그 基本的인 事項을 토의해가는 중간에 조금 意見差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명확히 해놓고 나가는 附則條項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근데 이 사항을 하지 말자는 것이 그쪽의 의견인데 그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附則으로 넣은 그 事項중에서 오늘은 특히 어느 부분에 신경질적으로 나왔느냐 하면 단독출전할 수있다 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북경대회조직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자 하는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나왔어요.

北京大會組織委員會에 서한을 通報하자 하는 그런 條項에 대해서 우리 南北끼리 이야기인데 왜 通報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경대회조직위원회 通報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內容이 뭐냐하면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共同委員會가 발족한다 하더라도 共同委員會가 필요한 일을 해 나가면서 合同訓練, 選拔戰, 選手團構成 다 해가지고 선수단이 구성완료 되어서 그 名單을 북경대회조직위원회에 통보하기까지는 共同委員會가 NOC기능을 방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미 合意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북경대회조직위원회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걸 안 알려주면 共同委員會가 출범하면 바로 지금 착착 準備되어 가고 있는 북경아시아대회 조직에 관해서 어디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그러한 혼란을 북경대회조직위원회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알려줘야 하고 또 둘째는 뭐냐하면 우리가 쓰러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에만 合意하자 合意하자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꼴을 우리가 한번 당했습니다. 1979년도에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평양에서 열릴 때 第35回 세계탁구선수권대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거예요. 3個月前에 단일팀을 구성해서 나가자 이런 提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단일팀을 구성하자 하는 건 좋은데 토론하다가 만일 안되는 경우에는 個別的으로 나갈 것을 확실히 보장해 놓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要求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保障할 것 뭐있느냐 單一팀 해가지고 單一팀 나가

면 될것 아니냐 이런 원칙론만 가지고 계속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날이 다왔다 이게 그래 우리는 비자 받아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우리는 會員資格을 갖고 있고 출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로서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는데 비자를 안주더라 이겁니다. 出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명확한 만일의 경우 어떤 歸責事由에 어느 측 歸責에 의해서든 또 불가항력에 의해서 든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가상해서 이럴 때는 단독으로 出戰할 수 있다하는 事項을 우리가 다짐함으로써 오히려 단일팀을 構成하는 의지를 더 明確히 하자하는 진의를 명확히 박자 하는건데 그 내용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7월달쯤 가가지고 한 5월달쯤 가서 選手選拔戰하다가 무슨 不可抗力의 사실이 생겨가지고 이 단일팀 구성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될 때 그럼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원칙적인 合意만 해놓고 북한이 외교관계 있는데 우리는 外交關係가 없고 중공에 가서 우리 原則적인 合意되어 있으니까 이것 될 때까지는 한국 NOC에 통보를 받지 마시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 등등 이유로 해서 반드시 單獨出戰 留保條項은 명시를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共同委員會의 對外的 機能의 시안문제를 포함해서 북경 대회조직위원회와 OCA에 서한으로 정중히 통보하는 문제야말로 가장 重要한 요체입니다 요체. 이것을 이사람들 탄말로 해서 자꾸 이것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하고 있는 것은 單一팀을 構成하자는 根本적인 의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럼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北側 代表團 記者會見>

* 時間 : 1990. 1. 15 (月) 12:52~13:07

* 場所 : 板門店 北側 地域 「板門閣」앞 階段

* 出處 : 1990. 1. 16 (火) 平壤放送 報道

제11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체육회담 실무대표들의 제5차 접촉이 1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국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접촉이 끝난 다음 우리측 장웅대표가 기자들과 회견하고 이날 접촉진행 정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쌍방 실무대표들이 수행해야 할 기본임무는 10개항의 유일팀 구성방안의 문안을 정리하며 유일팀 구성을 위한 공동위원회와 공동사무국 구성 및 운영세칙에 대한 문안정리를 끝내는 것이며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보장장치를 협의·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측은 먼저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안과 관련하여 이 방안은 유일팀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안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날 실무접촉에서 10개항의 기본방안에 대한 문안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세칙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은 제6차 본회담 때 남측이 제기하고 우리가 동의하였던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방안에 대한 문안정리를 이날 접촉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혀줍니다.

이와함께 합의된 사항에 대한 리행을 위한 보장장치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쌍방 올림픽위원회가 보증하고 그를 쌍방 총리들이 담보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측은 남측이 지난번 4차 실무접촉 때 새로 들고나왔던 부칙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그것이 유일팀 구성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들이거나 이미 쌍방이 유일팀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해결하기로 합의한 문제이므로 실무대표접촉에서 토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부칙들을 철회하는 것만이 회담을 빨리 결속할 수 있게 하는 옳은 처사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10개항의 유일팀 구성방안과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방안에 대한 문안정리를 끝내고 합의사항을 위한 보증문제만을 토의하여 다음번 제7차 본회담에서 서명함으로써 유일팀의 탄생을 선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호응해 나설 것을 남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날 우리측은 제11차 베이징 아세아경기대회에 북남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안과 코리아선수단 공동위원회 및 공동사무국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합의사항 리행을 위한 합의서안 등 4개의 합의서안을 남측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측은 말로는 스포츠정신이 중요하다느니 실천이 중요하다느니 뭐니 하면서도 자기측이 지난번 접촉에서 내놓은 잡다한 부칙부터 토의해야 한다고 고집해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남측이 들고나온 부칙내용은 유일팀구성과 아무

...
런 관련이 없거나 이미 쌍방 사이에 유일팀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합의한 문제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하면서 그것들은 실무대표접촉에서 애당초 토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측의 강한 논리와 설득력있는 설복에 의해서 남측은 하는 수 없이 유일팀 구성방안 10개항 서문토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측은 유일팀 구성방안 10개 서문에 대한 문안정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태도를 돌변하여 또다시 부칙을 토의하자고 탄전을 부렸습니다.

이어 남측은 부칙을 토의하지 않으면 유일팀 구성이 곤란하다는 엉뚱한 말까지 서슴없이 꺼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쌍방이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쌍방이 기본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팀 구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할 문제까지 부칙이라고 하여 유일팀 구성과 관련한 10개항의 세부사항 총 78개의 절반에 가까운 37개조항을 새로 들고나와 회담앞에 난관과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까밝히면서 남측은 도대체 이 회담을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인가고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측은 또한 남측이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관련하여서도 부당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6차 본회담 때 남측이 내놓은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방안에 그대로 동의를 준데 대해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방안은 제목까지 합하여 57개항이었는데 지난번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내놓은 합의서 내용을 보면 62개항으로 늘어난데다가 부칙 2개 조항이 붙어있고 본래의 방안 57개항 때와 다르게 고쳐놓은 항이 무려 27개항이

나 된다고 폭로했습니다.

우리측은 이것이야말로 개구리작전이라고 하면서 우리측이 합의해주면 또 수정안을 들고나오고 거기에 동의를 주면 또 다른 것을 내놓는데 남측이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고 까밝혔습니다.

우리측은 공동위원회 발족 이전에 친선교환경기를 개최할데 대한 남측의 안도 이번 회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담외적인 문제라고 까밝혔습니다.

우리측은 남측이 친선교환경기가 그 무슨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일팀 구성의지를 실증하며 체육교류의 길을 여는데 필요한 듯이 주장하지만 이 회담이 타결되면 분위기는 자연히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팀을 구성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이미 내외에 실증되었으며 유일팀이 구성되면 체육교류의 길도 자연히 트이게 된다고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추궁했습니다.

우리측은 남측이 공동위원회 발족 이전에 시설답사반을 교환하자고 제기한 것도 허황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대측 지역의 체육시설을 점검하자면 상대측 지역에 상주하게 될 공동사무국 성원들이 하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구태여 또 시설답사라는 것이 필요한가고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남측은 우리가 부칙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느니 친선교환경기가 본회담과 관련이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측은 남측이 진실로 유일팀을 구성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쌍방이 합의한대로 10개항에 대한 문안정리에 들어갈 것을 다시금 남측에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측은 남측이 쌍방 사이에 합의한 문제들을 계속 뒤집고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측이 2차, 3차 본회담

에서 선수선발전의 구체적 방법문제를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자고 합의해 놓고는 4차 회담 때에는 이 문제를 본회담에서 합의해서 공동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고집했을 뿐아니라 유일팀 구성방안 10개항에 대한 합의자체도 뒤집어놓은데 대해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남측이 공동위원회와 공동사무국의 구성·운영세칙에 대한 합의도 뒤집어 엮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27개항에 걸쳐 수정·보충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측은 남측이 유일팀 구성이 되지않을 것을 전제로한 서한을 국제기구에 보내자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안까지 제기한 사실에 언급하여 이것은 회담의 타결을 막고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것이며 공동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유일팀 구성 자체를 반대하는 속심을 스스로 드러낸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까밝혔습니다.

심지어 이날 접촉에서 남측은 쌍방이 수개월에 걸쳐 토의하고 합의한 유일팀 구성과 관련한 10개항은 알맹이가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부칙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부칙토의부터 하자는 꾀변을 거듭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회담에 임하는 남측의 부당한 립장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하면서 유일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고 거듭 따져물었습니다.

결국 이날 접촉에서는 남측의 부당한 립장과 자세로 말미암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측은 이날의 접촉을 결속지으면서 남측이 유일팀 구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기로 한 문제까지도 실무대표접촉에서 토의하자고 하는 것은 유일팀 구성문제가 유산되는 경우 그 책임을 우리측에 넘겨 씌워보려는 얄은수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남측이 어떤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더라도 유일팀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이 우리측의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실무대표접촉에서 토의할 성격의 문제도 아닌 부칙조항 토의를 고집함으로써 유일팀 구성을 유산시킬 경우 온 거래와 역사앞에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측은 남측이 조금이라도 유일팀 구성에 관심이 있다면 자기의 부당한 태도를 고치고 다음 회담에서 유일팀 구성방안 10개항과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세칙에 관한 합의서 문안을 정리하고 합의사항 리행을 위한 보장장치문제를 토의·해결하는데 성의있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